

### SPECIAL ESTIMATE OF FU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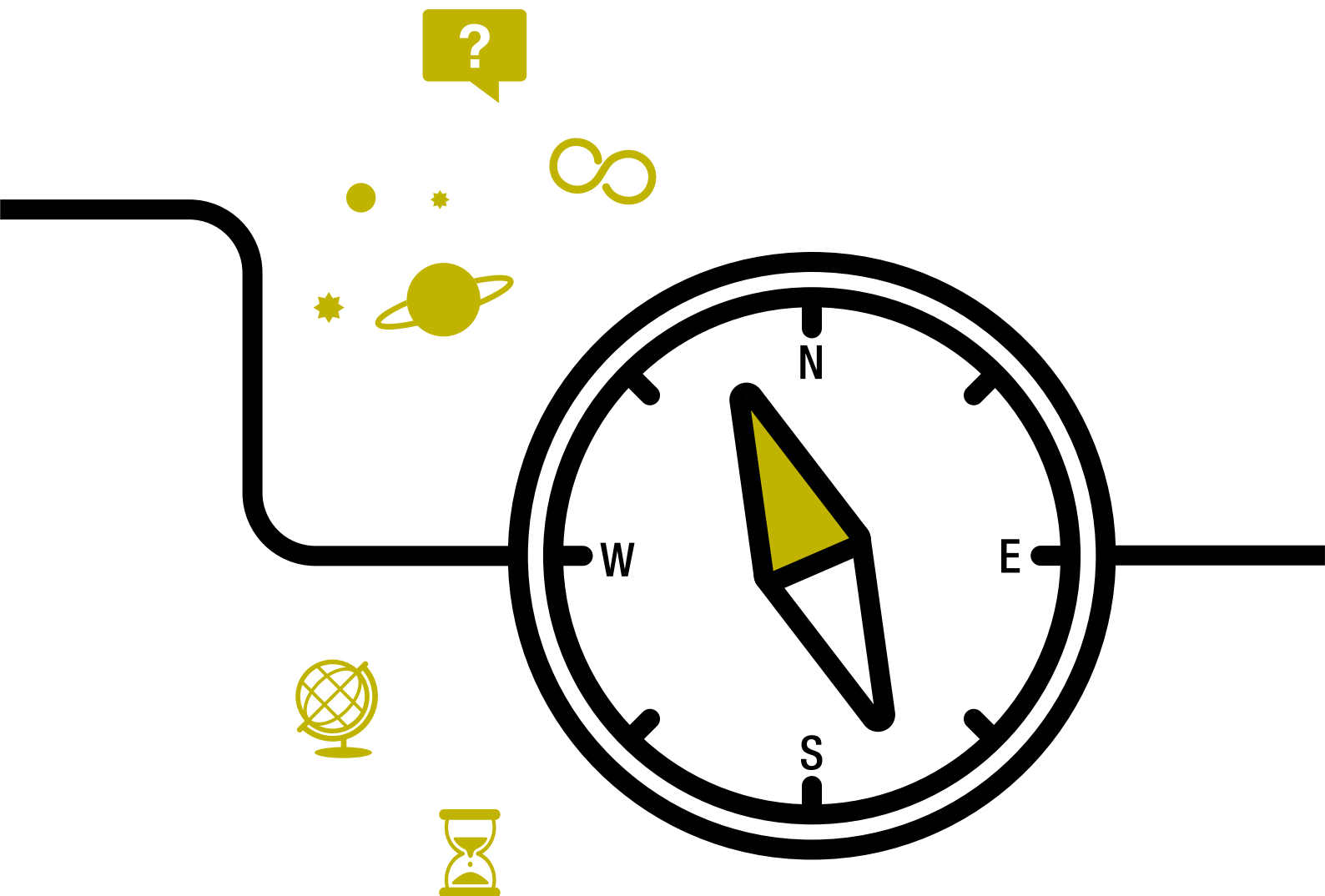
**KIPA ACTIVITY** / ① 상식을 뒤집는 아이디어로 꿈을 이룬 사람들 - 2013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② 40돌 맞은 한국발명진흥회, 지식강국의 미래를 묻다  
③ 반짝반짝 '황금발', 당신에겐 있나요? - 조은영 부회장 <세바시> 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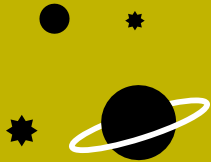
**COLUMN** / 변화의 시대, 중요한 것은 미래예측이다

**INTERVIEW** / 도래하는 복제시대, 우리에게겐 예측이 필요하다 - 박영숙 대표

11  
12

VOL.443  
2013  
NOVEMBER  
DECEMBER





# 미래

## 예측

ESTIMATE OF FUTURE

우리는 언제나 미래의 길목 앞에서 있다.  
오늘, 어떤 걸음을 걷느냐에 따라  
내가 향할 길이 바뀔 수 있고  
오늘, 어떤 고민을 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  
그렇기에 이 길목에서의 순간이 귀하고 값지다.

현대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말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바로 직접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불안과 행복, 혼돈과 질서가 역동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  
이 세상을 절망케 하는 그 모든 것을  
희망으로 바꿀 힘은, 바로 내게 있다.

내일을 향한 끊임없는 사유와 탐구가  
새로운 길, 그리고 변화된 나를 만들 것이다.

세상을 밝히는 발명과 특허 이야기

# 발명특허

2013  
NOVEMBER  
DECEMBER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전문정보지 [발명특허]는 한국도서잡지윤리위의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는 본회의 견해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발행일 | 2013년 12월 5일

발행처 | 한국발명진흥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발행인 | 김광림 편집·기획 | 한국발명진흥회 기획팀 박선민(02.3459.2727) www.kipa.org

편집디자인·제작 |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m.com



## contents

### SPECIAL

#### KIPA ACTIVITY

### ESTIMATE OF FUTURE

- ① 상식을 뒤집는 아이디어로 꿈을 이룬 사람들  
- 2013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04**
- ② 40돌 맞은 한국발명진흥회, 지식강국의 미래를 묻다 **08**
- ③ 반짝반짝 '황금밭', 당신에게 있나요? - 조은영 부회장 <세바시> 강연  
변화의 시대, 중요한 것은 미래예측이다 **10**
- 도래하는 복제시대, 우리에게 예측이 필요하다 - 박영숙 대표 **12**

### COLUMN

#### INTERVIEW

- ① 상표심사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20**
- ② 소프트웨어(SW) 특허의 위기 **24**
- ③ 최근 국제지식재산권 동향에 관한 고찰 **28**
- ④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전략 **32**
- ⑤ 글로벌 동향 **36**

### IP FOCUS

- 시대를 앞서가는 IP리더를 양성한다 **40**
-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시장 개척 속도 낼 것" - (주)HK 터빈 **44**
- 아날로그의 진정한 힘은 낭만이 아닌 '실용'이다 **48**
- 발명, 그 소소함에 대하여 **50**
- 예술이 삶의 심표가 되는 황학동 사람들 이야기 **52**

### 발명가 사람들

#### 지식 더하기, 기술 나누기

#### 트렌드 리포트

#### 생활 속 발명이야기

#### IDEA 공작소

#### IP NEWS

#### KIPA NEWS

#### 특허 Q&A

**70**



# 도전이 없으면 '최고'도 없다

2013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 지식재산활용전략  
컨퍼런스 개최

# 상식을 뒤집는 아이디어로 꿈을 이룬 사람들

지식재산과 창의발명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때문에 지식재산권과 발명의 개념을 이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신기술과 신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각종 절차나 방법 등을 아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다. 지난 11월 29일, 코엑스에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된 '2013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이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는 '2013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과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상표·디자인권전'이 통합 전시되었으며, 우수 지식재산 관련 제품(기술)의 전시 및 유통촉진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독일, 대만 등 31개국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발명품이 모인 세계 최대 규모의 발명·기업인들의 축제의 장이 되었다.





01. '2013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개막식에서 김영민 (왼쪽 두 번째) 특허청장과 윤상직(왼쪽 세 번째) 산업 통상자원부 장관, 조은영(왼쪽 네 번째)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의 테이프 커팅식이 진행됐다. 02. 플랫폼베이스 부스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과 김영민 특허청장, 조은영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기업의 전자식 잠금장치용 카실린더를 살펴보고 있다. 03. 조은영 한국 발명진흥회 부회장과 '2013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수상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조은영 부회장 “지식재산이 성장 열쇠다”

올해로 32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은 그동안 매년 100여점 내외의 우수한 발명품을 발굴하여, 그 발명가들을 포상하고 격려해왔다. 또한 단순한 발명품의 전시회에 그치지 않고,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녹아있는 발명품이 실제로 만들어져 사업화될 수 있도록 구매상담의 장도 함께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행사가 진행되는 코엑스 A홀 앞은 시작하기 한 시간 전부터 인산인해를 이뤘다. 수상자들의 설렘과 기쁨,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을 향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우러져, 이들의 뜨거운 열정이 피부에 와 닿는 듯했다.

내빈들의 테이프커팅과 에어샷으로 행사의 시작을 화려하게 알린 후, 전시장에서 주요 부스의 순회 관람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곧바로 장소를 이동하여 1부 시상식이 시작됐다. 이번 시상식에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영민 특허청장, 조은영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 러시아과학기술 협의회부총장, 태국NRCT사무총장 등 국내외 내빈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뜨거운 열정과 발명정신으로 성장기술 개발과 혁신제품 생산에 최선을 다해준 발명인과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참병 역시 창의와 도전정신을 갖춘 발명인 여러분”이라며 발명인들에게 국가의 경쟁력과 미래가 달려있음을 이야기했다.

이날 개막사에 나선 조은영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식재산전쟁의 소용돌이를 잘 이겨내려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고 신제품과 신사업을



04



05

04.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13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05. '2013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시상식장에서는 우수 발명품에 대한 시상식이 이루어졌다. 06. 조은영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이 '2013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수상자들에게 시상하고 있다.

만들어내는 창조경제를 실현해야 한다"며,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발명가로 인정받은 수상자 여러분이야말로 창조경제를 이루어낼 핵심역량"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발명특허대전에서는 360여점이 넘는 발명품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중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96점의 발명품이 올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됐다. 또한 우수상표(권) 공모전을 통해 40여점의 우수상표가 발굴됐다.

시상식에서는 (주)진시스템의 '중합효소 연쇄반응 장치'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기존에는 현장에서 시료를 추출해 실험실로 옮긴 후 유전자의 감염 여부를 진단했으나, 이 장비는 현장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주)진시스템의 조민호 대표는 "축적된 마이크로 플루이딕 기술 및 바이오장비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혁신적인 국산 바이오장비 개발을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1차 개발 제품인 'GENECHECKER Ultra-Fast PCR System'을 필두로 분자 진단 관련 솔루션들을 지속 출시함으로써 국내 진단기술의 다각화와 바이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국무총리상에는 디지털 자물쇠에 내장되는 배터리를 리모콘에 적용해 크기를 소형화하고 보안성을 강화한 플랫폼에이스의 '전자식 잠금장치용 키실린더'와 나뭇가지 형태의 나노구조체를 적용해 구부러지는 투명 전극재료를 개발한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태양전지 소자 및 그 제조방법'이 선정되어 이목을 집중시켰다.

### 지구촌 31개국 발명품 한자리에

서울시와 국제지식재산권기구(WIPO), 국제발명가협회(IFIA)가 공식 후원하는 '서울국제발명전시회'는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발명 전시회로 세계 31개국 총 700여점의 독창적인 발명품이 전시됐다. 동시에 올해 8번째로 개최되는 '상표·디자인권전시회'는 기업의 중요 자산인 우수 브랜드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 약 150여 점의 우수 상표와 디자인이 전시됐다. 이번 행사장은 통합전시회 수상작 전시관과 생활발명전시관, 군 발명전시관, 해외 출품관, 발명품 구매상담회장, 특허기술사업화 지원정책설명회장, 무료 변리자문관, 체험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구매상담회장에는 롯데 홈쇼핑과 이베이, 아마존, 라쿠텐, 타오바오, 알리바바 등 국내외 유명 오픈마켓 바이어들이 다수 참여해 우수 발명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했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전시회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다양한 아이



06



07. 특허기술이전·사업화성공사례발표회에는 총 36개 기관이 참가하여 1~2차 심사를 걸쳐 최종 8개 기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08. 관람객들이 다양한 부스를 돌아보며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07

디어들이 제시됐다"면서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산업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1부 시상식과 2부 시상식에 걸쳐 143명의 수상자에게 상장이 주어졌다. 시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 등이 참여했으며, 한 명 한 명 상장이 주어질 때마다 뜨거운 박수가 이어져 오늘이 우리나라 발명인들에게 축제의 현장임을 알 수 있었다. 시상이 끝난 후에는 개별적인 기념촬영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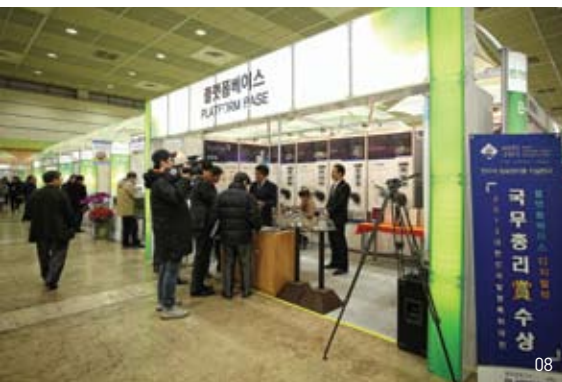
### 지식재산권 활용을 통한 창조기업 성장전략 모색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13 지식재산활용전략 컨퍼런스'가 같은 날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됐다. 특허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이 IP금융, IP경영 등 지식재산권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다양한 지원정보와 전문가의 의견을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오후에 열린 <지식재산금융 세션>에서는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창조금융', '주식시장에서의 지식재산과 금융의 창조적 융합'에 대한 발표와 함께 지식재산금융 상품소개와 상담이 제공되는 별도 코너가 운영되어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제공됐다. 이어서 진행된 <지식재산거래 세션>에서는 '전략기술의 해외이전 시 유의사항 및 사전검증방법', '성공적인 한·중 기술이전 백문백답', '기술거래 관련 분쟁유형 및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되어 기술사업화를 준비 중인 기업들에게 효율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이번 행사는 컨퍼런스 외에도 성공사례 발표회 및 투자설명회, 기술이전 설명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개최됐다. 특히 성공사례 발표회를 통해 코카스엔텍(주)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금상)을 수상했으며, (주)동인과 한국과학기술원이 특허청장상(은상), (주)코비스옵틱, (주)모던텍, 한국토지주택공사, 제타플랜인베스트먼트, 광주광역시 남구청이 한국발명진흥회장상(동상)을 각각 수상했다.

권혁중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앞으로 지식재산거래 및 지식재산금융 지원기반을 보다 강화하여 국내 기업들이 지식기반경제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지식재산권을 기업 경쟁력 강화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발명특허



08

국내 발명역사의 한 획을 그은 한국발명진흥회가 올해로 40돌을 맞았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지난 달 22일, 창립 40주년 기념식과 컨퍼런스를 개최함으로써 사회 각계각층 인사의 축하 속에 앞으로의 40년을 새롭게 기약했다. 미래 지식강국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KIPA, 이날 진행된 창립기념행사에는 지식재산을 지키기 위해 앞뒤에서 힘쓴 직원들의 함박웃음이 가득했다.



지식재산 중심 40년  
미래창조 중심 KIPA

40돌 맞은  
발명진흥회,  
지식강국의  
미래를 묻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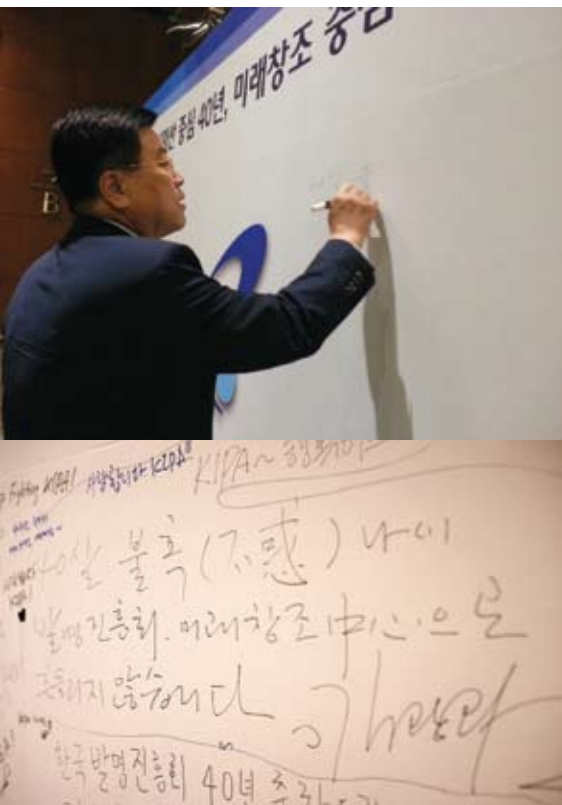
“40돌 맞은 한국발명진흥회, 다 같이 축하합니다”

“6명의 직원으로 시작한 한국발명진흥회가 어느새 160여 명의 직원 규모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1973년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생활소득 수준을 앞서기 시작한 해입니다. 생각해보면 한국발명진흥회 40년 역사는 지식재산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곧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역사와 그 궤를 함께 하고 볼 수 있어요. 마흔 살의 나이를 공자는 ‘불혹(不惑)’이라고 이야기했죠. 서른은 학문을 완성하고 마흔은 세상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자기 삶을 사는 시기입니다. 한국발명진흥회 역시 불혹의 나이에 외부의 여러 자극에도 흔들림 없이 잘 버티고 있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광림 한국발명진흥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40돌을 맞은 KIPA 임직원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건넸다. 특정한 몇몇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 임직원 모두의 노력이 더해져 쌓아온 불혹(不惑)의 역사이기도 그 겹겹의 시간이 더욱 값지다는 게 김광림 회장의 인사말이었다.

“창조경제를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MBC 예능프로그램 <아빠 어디가>에서 나온 ‘짜빠구리’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 실제로 농심 사의 매출이 약 80% 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 한국발명진흥회는 사회 곳곳에 지식재산을 보강하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행사에 참석한 김영민 특허청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발명진흥회가 창조인재를 육성하는데 아주 집중적인 역할을 해 왔다”며 “특히 평가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 그동안 한국의 발명진흥 지식재산 정책을 이끌어 옴으로써 전문기관으로 눈에 띄는 성장을 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는 “한국발명진흥회가 출범한 후, 1974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은 연간 2만5천여 건에 불과했지만 지난 2012년을 기준으로 약 39만7천여 건의 지식재산권이 등록됐다. 이는 약 15배 이상의 성장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IP TOP5’의 지식강국으로 발전했다. 오늘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큰 날이다. 앞으로도 오늘과 같이 한국발명진흥회의 앞날이 빛나기를 기원한다”고 언급했다.





### KIPA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이날 행사에는 귀빈 이외에도 약 200여 명의 KIPA 임직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행사 시작부터 삼삼오오 자리를 잡아 앉으며 서로에게 안부를 건네는 임직원들의 모습에서는 지식강국의 중심에 서 있는 KIPA 직원으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졌다. 김광림 회장의 기념사와 김영민 특허청장의 축사가 끝난 이후 시작된 저녁 만찬에서는 행사를 준비한 임직원들의 건배사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앞으로의 40년을 준비하는 한국발명진흥회를 위해 세계미래포럼 이영탁 이사장은 '미래시대'를 주제로 강연을 이어나갔다. <새로운 미래,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 한 그는 향후 우리 앞에 속도와 감성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가속'과 '감성', 더불어 '평등'이 함께 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기술발전으로 정보교환은 빨라지지만 '하이터치', '하이컨셉'이 중요시 되는 만큼 사람들의 감성을 놓치지 않는 것도 강조될 것입니다. 더불어 융합과 협업의 시대가 열릴 것인 만큼 지성과 감성을 겸비한 차세대 인재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죠."

강의 후 상영된 한국발명진흥회 40년 영상에서는 6명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발전한 한국발명진흥회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40년의 역사 동안 눈부신 발전을 거듭한 한국발명진흥회의 노력을 보며 직원 모두는 자못 진지해졌다. 이후 각 팀별로 특별 퍼포먼스를 찍은 40주년 기념 영상이 나오자 분위기는 반전을 이루며 신선한 웃음과 재미를 안겨줬다.

그야말로 자유로운 축제의 장(場)이었다. 이는 마치 즐거움과 기쁨, 더불어 슬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동료들 사이에서만 나올 수 있는 화기애애함이었다. 이날 임직원들은 함께 헤쳐 나갔던 어려운 프로젝트에 대해 회상하고 뿌듯하고 보람찬 경험들을 나누면서 서로에의 의지를 더욱 키워갔다. 발명특허



# 반짝반짝 '황금발', 당신에겐 있나요?

〈세바시〉 강연, 황당하고 궁금한  
발명이야기 들려준 조은영 부회장

아마 과거 사람들은 2000년대 사람들을 우주인으로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들이 그려낸 미래의 우리들을 살펴보면 우주복을 입고 희한한 머리스타일을 한 채, 무미건조한 표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볼 때 과거의 사람들은 2000년대라는 시간을 다소 멀고 낯선 공간으로 생각한 듯하다. 사실 지금 우리는 과거 그들과 다를 바 없이 매우 인간적인데도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상을 들여다보며 한 가지 놀라운 점은 그때의 상상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이다. 휴대용 전화에 전기자동차, 인간과 기술이 공존하는 지금의 시대는 아마 과거 사람들의 상상이 있었기에 존재할 수 있던 모습이지 않을까.

## 당신이 지금 영화 속 주인공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던 지난 8월,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CBS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세상을 바꾸는 15분, 이하 '세바시'〉에서 다양한 분야의 발명가들을 초청해 발명특집강연을 마련했다. 기발한 상상력을 가진 연사들의 강연은 수많은 청중들을 매료시켰고,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지난 11월 11일, KT 체임버홀에서는 발명특집강연의 두 번째 시간이 마련됐다.

발명과 창의, 그 너머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한다는 의미로 'Beyond Invention'이라는 테마로 진행된 이번 강연에는 조은영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과 이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과장, 박도영 현대기아차 기술연구소 연구원, 엄윤설 키네틱 아티스트, 박재욱 VCNC 대표, 김흥기 패션큐레이터 등 총 여섯 명의 연사가 강연을 진행했다. 조은영 부회장은 '황당하고 궁금한 발명이야기, 황금발'이라는 주제로 청중과 만났다. 엉뚱한 상상에서 창의적 발상이 시작된다는 조 부회장의 강연은 〈세바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많은 청중들에게 발명 의욕을 고취시켰다.

"지금은 지식재산 시대입니다. 지식재산 시대란 이름 그대로 지식재산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벌 수 있는 지식재산이란 무엇일까요? 발명과 디자인 등 다양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러한 모든 지식재산을 만들어 내는 원천은 바로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 부회장은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스타트렉〉, 인공지능 자동차 키트가 등장하는 〈전격Z작전〉, 투명망토를 만날 수 있는 〈해리포터〉 등을 보여주며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이 세상의 리더들은 끊임없이 미래를 상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금 우리 사회는 그들의 상상대로 꾸준히 진행형에 있다고 덧붙였다.



### 여러분의 상상이 세계를 창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영화 속 상상들이 현실화될 수 있던 것은 위대한 발명가들의 노력이 지속됐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그들은 계속해서 발명에 발명을 거듭했죠. 날개 없는 선풍기와 먼지봉투 없는 청소기가 지금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존재할 수 있던 것도 수많은 실패를 거듭한 발명가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강연을 진행한 조은영 부회장은 “창조경제 시대에 청중들에게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공부만 잘하는 모범생보다 엉뚱한 상상력을 가진 괴짜가 필요합니다. 정형화된 틀에 매이기보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중요하죠. 그러한 생각 때문에 이번 강연을 마련했습니다”라며 강연의 계기를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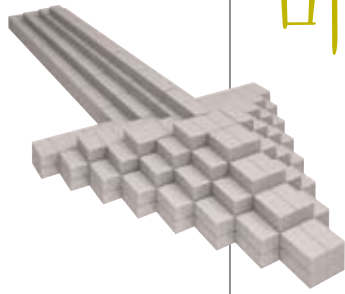
“우리가 삶에서 문득 문득 떠올리는 엉뚱한 상상들은 결코 소용없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위대한 발명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상상과 엉뚱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단지 발명으로 이어지는 것뿐 아니라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합니다. 기발한 상상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재미있는 일이잖아요(웃음)”

앞으로 도래할 지식재산 시대는 아이디어와 발상이 중요한 시대다. 조 부회장은 강의 말미에 미래 학자 피터 드러커의 말을 인용하며 자신의 생각을 청중들에게 전달했다.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얘기했죠.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단언컨대, 미래를 창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발명을 하는 것이다.’ 발명특허



# 변화의 시대, 중요한 것은 미래예측이다



불확실성이 크다는 말을 자주 한다. 미래가 빠르게 변한다는 말도 한다. 그렇다. 지금 우리 앞에는 폭과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 이끌어 왔던 세계 질서의 축이 흔들리면서 세상이 크게 변하기 시작했다. 사회와 경제 및 국제적 체계모니에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다. 경제도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기존에 옳다고 여겨졌던 성공전략이나 세계관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과거에 좋은 회사, 직업, 투자처라고 여겨졌던 것들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모든 것에 대한 의심으로 번지고 있다.

## 미래사회를 여는 변화의 물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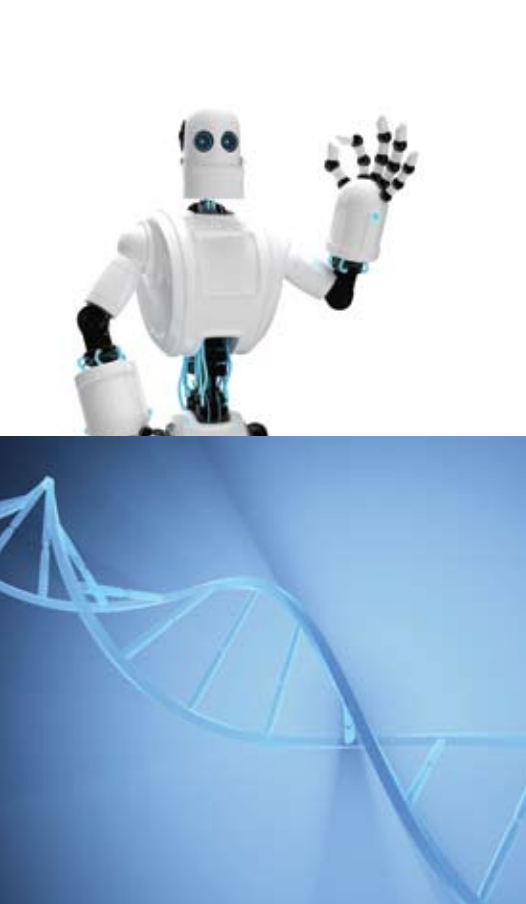
심각한 수준의 환경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인간을 향한 자연의 공격과 화석에너지의 고갈로 인한 에너지 공황의 가능성, 새로운 대체에너지의 긴급한 필요성을 교묘하게 이용한 또 다른 금융 거품이 일고 있다. 그리고 사이보그 및 인공지능 기술의 진보가 가져올 인간 본연의 존재론적 문제, 줄기 세포기술과 기타 생명공학기술 등이 불러올 생명윤리적 대립과 갈등, 가상현실 기술의 발달로 인한 다양한 인격과 의식의 출현, 산업이동을 통한 디커플링화(decoupling)되는 노동시장, 그로 인한 실업대란과 신용붕괴,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인한 글로벌 빈곤문제와 이런 불평등을 매개로 한 지역분쟁과 국제적 테러의 증가, 종교 간의 대립과 갈등, 문화권의 충돌 등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변화들은 당연히 개인, 기업의 생존환경과 미래 기획의 대이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가상인식, 가상국가, 가상기업, 가상학교, 가상가족 등 새로운 공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엄청난 변화의 물결들도 미래 생태계의 변화를 주도하는 에너지로 작용하고 있다.

기회가 대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위기도 함께 찾아온다. 필자의 예측에 의하면, 2008년 금융 위기의 공포는 끝나지 않았다. 이 위기조차도 앞으로 5년 정도는 더 여진을 만들어낼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 저성장의 여파를 맞을 수 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의 5년이 경제적 내리막길을 가면서 나타난 위기라면, 앞으로 5년은 회복 국면에서 나타나는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 특히 미국의 출구전략이나 금리인상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의 흔들림이 클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세계는 시장의 완전 자유와 국가의 적절한 통제 사이의 균형 피드백 작용을 통해 새로운 안정을 찾아갈 것이다. 그리고 곧바로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는 촉진자 역할을 하는 미래산업에서 버블이 시작되면서 또 다른 기회의 대이동과 반복적 위기의 발발이 교차할 것이다. 지난 10년이 미국과 유럽이 금융위기의 진원지였다면, 앞으로 10년은 한국, 일본, 중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의 진원지가 될 것이다. 또한 IT 제2차 혁신, BT, NT, RT 등의 미래기술들을 명목으로 거대한 금융버블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Estimate  
of Future



### 혁명적 수준의 기회 대이동

그러나 암울한 미래만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역사상 유례 없는 혁명적인 부와 성공의 기회가 몰려 오고 있다. 지난 50년의 경제발전보다 더 혁명적인 기회의 대이동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기회적 측면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란 부의 대이동과 성공의 기회가 펼쳐질 것이다. 예를 들어, 2020년 이후가 되면 자동차산업 규모를 능가하는 바이오생명산업의 시대가 열린다. 전 세계 GDP의 85%를 담당하는 20여개 국가들이 10~15년 이내에 모두 고령화된다. 이런 고령사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소비하는 제품과 서비스는 단연코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해 주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 변화조차도 혁명적 부의 대이동의 시작에 불과하다.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이내에 3D 프린팅 기술이 한 단계 더 진보와 가격 하락을 하면서 개인들이 자기 집에 공장을 소유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제조업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제3차 제조업 혁명이다.

또한, 선진국들의 고령화 추세는 가정용 로봇분야에서의 혁신과 거품을 생성하게 될 것이다. 가정용 로봇산업의 경우 20세기 초 철도산업의 혁신과 비교될 정도로 막강한 기회다. 미래학자들과 전문가들은 2030년이 되면 1인 1가구 로봇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측한다.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를 비롯해서 입는 로봇, 사이보그 장비, 애완용 로봇, 가사 도우미 로봇 디바이스 등이 가정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보조하면서 1~2인 가구나 은퇴 후 40~50년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자식보다 더 든든한 반려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아마도 바이오생명산업과 로봇산업은 2020년 이후 10년 이상을 시장의 모멘텀을 주도하면서 주식시장에도 일대 광풍을 일으킬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거품이 꺼지면서 금융 위기가 또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 이후로도 IT분야의 제2의 버블로 불릴만한 가상현실과 유비쿼터스 기술의 혁신적 진보, 양자역학과 더불어 NT산업 분야에서 혁신적 기술의 진보가 발생할 것이다.

### 미래예측은 선택 아닌 필수 요건

이러한 새로운 미래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출발은 미래에 관심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물론, 변화가 큰 시대에는 미래를 예측해 본다는 학문적 특성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미래학에 매력을 느낀다. 동시에 미래를 예언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유혹에 빠진다. 인간에게는 어떤 미래가 닥치기 전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정확하게 미리 알아차리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기대도 인간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갖게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올바른 이론, 정교한 방법론, 충분한 자료와 자금지원만 있다면 미래를 예언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품었다. 현대에 들어서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발달하자 이를 이용한 정량적 예측이나 시뮬레이션, 미래 모형화 작업의 가능성이 열리면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은 더욱 커졌다. 그래서 미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후에는 미래에 대한 좋은 '생각의 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는 예언할 수 없는 것이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예측에도 틀이 있다. 미래학은 미래를 예언하려는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 단지, 미래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을 통찰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다. 그래서 결정론적 혹은 운명론적 세계관의 영역에서 거론되는 '예언'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1971년 웬델 벨(Wendell Bell)과 제임스 마우(James Mau)가 말했던 것처럼, '미래의 사실'이라는 것은 현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아무리 좋은 예측 방법론이 개발된다 할지라도 미래는 100%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다. 정확한 미래 예언 능력을 발휘할 방법이나 마법의 열쇠도 없다. 그래서 현대의 미래학은 '하나의 미래(a future)' 혹은 '바로 그 미래(the future)'가 아닌, '대안적 미래들(alternative futures)'과 '다양한 가능성의 미래들(possible futures)'의 예측과 연구에

미래예측은  
단순히 호기심거리 수준이  
아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필요한 능력이다



학문적 탐구 목적을 둔다.

물론 어쩔 수 없이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안다”라는 말을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럴 때에도 “미래를 안다”는 것은 “미래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안다”는 의미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미래학은 하나의 고유하고 독특한 영역이지만, 동시에 통합되고 응용적인 미래지향적 사회과학 분야로 분류될 수 있다. 미래학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이렇다. 미래의 변화는 필연적이거나 운명적으로 정해진 곳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미래는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세계, 그럴싸한 세계, 꿈과 가치가 어우러진 바람직한 세계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미래는 일어날 가능성이 현저히 낮더라도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발생할 수 있는 세계, 우리가 전혀 예측하거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도 가능하다.

미래는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통찰할 수 있는 충분한 ‘미래 징후’를 보여 주면서 우리 앞에 다가온다. 미래학자는 미래 징후들에 인과적 상상, 상관적 상상, 비약적 상상을 더하여 그럴듯한 미래, 가능성의 미래들, 생각해 보아야 하는 미래 등의 다양한 ‘미래 형상(形象)’을 부여한다. 미래 학자들은 이런 범주에서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들을 예측해본다. 이런 태도와 방법들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미래를 대하는 좋은 자세다.

#### 미래를 생각하는 창조경제

창조경제가 이번 정부의 화두다. ‘창조경제’라는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은 영국의 경영전략가 존 호킨스(John Howkins)다. 그는 2001년 자신의 저서 ‘The creative economy’에서 창의성과 경제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많은 사람이 아이디어로 돈을 벌며, 창의적 아이디어는 대부분 경제적 가치를 만든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아이디어는 경제적 시시점에 영향을 주거나 쉽게 교역이 이루어지고, 시장성이 높은 상품과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 이런 류의 창조적 생산품과 창조적 서비스는 대부분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이런 창조경제의 성공도 전제가 있다. 다가오는 기회와 위기에 대한 예측을 한 후, 이를 해결하는 도구로서의 창조경제가 의미 있다. 위기와 기회의 고려 없이 마구잡이식의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래예측은 단순히 호기심거리 수준이 아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필요한 능력이다. 즉, 창조경제를 성공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능력이다. 발명특허



글 최윤식  
전문 미래학자  
한국뉴욕주립대 미래연구원장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소장





도래하는  
복제시대,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

우리에게  
예측이 필요하다



01. 사단법인 유엔미래포럼의 박영숙 대표는 대구 사이버대학교 미래예측전문가과정 담임교수 및 연세대학교 주가환경학과 담임교수로 미래예측 강의를 하고 있으며, 인데일리 인터넷 미래예측뉴스포탈에서 칼럼 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02. 1998년 '새천년이 되어도 지구는 온전히 살아남을까?'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UN Millennium Project'를 설립했다. 현재까지 50여 개 국가에 지부를 두고 매년 책 <유엔미래보고서>를 출간하는 등 지구촌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 변화에 대처할 방법들을 모색 중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염원의 대상이다. 앞날에 발생할 일을 미리 알아 재난은 피하고 호사(好事)는 취하고자 하는 게 인자상정(人之常情)이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에서인지 과거부터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맞춰줄 수 있는 대상에게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의존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다. 과거의 미래예측이 자연현상과 재해 등에 기대어 이뤄졌다면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예측'은 방대한 정보의 흐름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 과연 우리의 미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까.

### 시대가 빠를수록, 미래예측은 필수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변모하고 있다. 과거 농경시대와 산업시대, 정보화 시대를 거친 후, 후기정보화시대를 앞둔 지금 미래예측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과거의 미래예측이 농경을 위한 기후 변화를 살피는 것에 그쳤다면 지금은 생활 전반으로 그 범위가 확대됐다. 국제정세가 곧 가계의 정세로 이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현대인들에게 앞날의 예측이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항목이 된 것이다.

국내 손꼽히는 미래학자로 불리는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는 모든 것이 신속하게 변하는 시대에서 미래예측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사회는 더욱 더 빛의 속도로 변모할 것입니다. 농경시대가 7천년, 산업시대 2백년, 정보화시대는 50년 만에 끝이 났지만 다가올 후기정보화시대에는 15년 만에 지나간다고 해요. 새로운 것이 빠르게 생겨나고 이전의 것이 순식간에 소멸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소멸하는 것인지 혹은 앞으로 계속 건재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없어질 것을 붙들고 있다면 그만큼 경쟁력을 잃는 것이니까요."

박영숙 대표는 현재 세계 각국의 정부가 미래예측기구를 통해 10년 혹은 15년 후를 예측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앞날에 대한 국민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더불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발 빠른 국가들은 이미 미래예측에 많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앞날을 예견하고 국가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결국 국가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미래예측이 국가생존과 밀접하게 직결돼 있다는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돈'이 된다는 의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한 것 보다 더 큰 부(富)를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개인에게 제공한다.

"각 나라와 기업이 미래예측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 중 경제적인 부분이 큰 범위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이것은 2000년대가 개막을 하면서 이미 가속화된 부분이지요. 새천년이 시작되면서 지구의 도전과 기회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심화됐고, 10년 후를 내다보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미래는 국가 정책과 예산이 조화를 이룬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번 방향이 정해졌다면 거기에 예산을 집어넣어 적극적인 추진을 이뤄야겠죠. 미래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미래를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무형의 재산이  
강조되는 미래사회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지금보다 한층  
강화될 것이다

03, 04, 05 박영숙 대표는 정보화 시대, 소통의 시대가 오면서 여성의 세밀함과 감성적인 능력이 더욱 중요시 될 것이며, 과학 분야에 있어서도 IT를 넘어선 본격적인 나노바이오, 뇌 공학의 시대가 열리는 것도 곧 다가올 큰 변화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배움에 대한 사람들의 욕망은 더욱 커질 것이고, 따라서 교육은 미래 사회에서도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03

###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

박영숙 대표는 앞으로의 시대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미래사회에서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뉴스, 디지털 카메라 등 많은 것들이 소멸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 중 많은 것들이 설 자리를 잃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돈이 되는 산업들은 대부분 벨 커브를 지나서 붕괴하고 있는 시점에 들어섰어요. 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를 지나온 철강산업은 그래핀 카본의 시대로 가고 있어요. 대규모 국가가 갖고 있던 에너지공급체계는 각 가정에서 관장하게 될 것입니다. 현금도 소멸해 전자화폐가 등장할 것이고 이에 따라 2024년에는 세계단일통화가 나오게 될 거예요. 디지털카메라도 소멸할 것이고 스마트폰 등도 2020년 이후에는 몸 속에 삽입되는 바이오컴퓨터로 대체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미래는 중요하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청년에게도 혹은 살아온 날이 더 많은 노인에게도 미래는 똑같은 무게로 강조된다. 비단 살 수 있는 날이 단 하루만 남았다 해도 그것이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그만큼 남겨진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소중한 기회가 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자신의 자리에 서서 앞날을 좀 더 멀리 내다보고자 노력한다. 그것을 좀 더 명확히 둘러보고자 두 눈을 커다랗게 떠보기도 하고 가느다랗게 좁히기도 하면서 한 곳을 응시한다. 이처럼 앞날을 바라보는 시야의 가시거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거 자신이 걸어온 길과 현재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미래는 상상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예측을 해야 하는 분야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예측 방법을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하겠죠. 마치 한글을 배우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눈앞에 보인다고 해서 모두 바람직한 미래가 아니듯 긍정적인 앞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예측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미래예측 역시 하나의 학문으로 다가설 필요가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교과과정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파악하는 연습을 꾸준히 지속해야 합니다.”



04



05

### 지식재산권의 미래, 어떻게 달라지나

무형의 재산이 강조되는 미래사회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지금보다 한 층 강화될 것이다. 특히 웹기반의 정보가 방대해지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형태로 확장되면서 지식재산을 지키기 위한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미래에서 지식재산 분야는 어떤 형태로 변화할까. 이에 대해 박영숙 대표는 “지식이 재산의 주요 원천이 되면서 지식재산의 의미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는 “다만, 개개인의 지식재산권을 보수적으로 감추려 한다면 미래사회에서는 분명 도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식에 기반을 둔 사회지만 개인의 지식재산권을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사회 전체가 거대한 지식재산을 공유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웹을 통해 정보는 계속 오픈(open)되고 있죠. 이것이 더욱 발전해 미래사회에서는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의 의미가 개인에서 그룹으로 훨씬 커지는 것이죠.”

박 대표는 이에 대해 “지식재산권의 의미가 지금보다 확대된다고 볼 수 있는 셈”이라며 “오픈소스 형태로 여러 사람이 협력해 새로운 창조물을 도출하는 게 중요해질 것입니다. 지금도 융합과 협력이 사회의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듯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심화될 거예요. 더 많은 생각이 모일수록 새로운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복제(copy)의 시대가 도래하는 미래사회에서, 박영숙 대표는 우리가 더 넓은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개인뿐 아니라 기업과 국가 경쟁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뿐이기 때문이다.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이 미래를 읽는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라는 박영숙 대표는 무엇보다 앞날을 기대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모두에게 좋은 미래를 선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명특허

IP Focus  
01

# 상표심사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창조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특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상표·브랜드에 대한 인식은 미흡하다. 상표는 특허만큼 중요하지 않을까? 세계적인 특허와 상표를 비교해 보면 상표의 가치가 결코 특허에 뒤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상표는 특허만큼 중요하지 않다?

최근 구글이 모토로라를 약 125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무선통신과 관련한 17,000개의 특허가치를 약 55억 달러(약45%)로 산정한 바 있다. 그런데 인터브랜드사가 발표한 2013년 세계 100대 브랜드를 살펴보면 1위인 애플의 브랜드 가치가 983억 달러,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약 396억 달러로 각각 모토로라 17,000개 특허의 약 17배, 7배의 가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르메스의 버킨백'은 가격이 최하 800만 원에서 최고 2억 원까지 책정된다. 일반가방의 수십·수백 배 가격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이 넘쳐서 돈이 있어도 마음대로 살 수 없고 주문 후 3년을 기다리는 것이 보통이다. 버킨백의 가치는 기능이나 품질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브랜드, 디자인 등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버킨백의 명성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좋은 특허에 대한 인식에 비해 좋은 상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미흡한 편이다. 좋은 상표란 무엇일까? 우선 경쟁업자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모방상표는 좋은 상표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좋은 상표는 눈에 잘 띄고 부르기 쉬우며, 우수한 품질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나타내주는 상표여야 한다. 또한 권리등록 과정이 쉽고 신속하게 권리가 부여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로부터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상표가 좋은 상표라 할 수 있다.





박성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  
국장



특허청은 좋은 상표가 등록되어 우리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올해 9월 상표심사 품질 제고방안을 수립했다. 심사정책은 법보다 심사기준에 의해서 더 많이 좌우된다. 이하에서는 품질 제고방안의 실현을 위해 바뀐 상표심사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상표브로커 없는 세상

최근 언론보도 등을 살펴보면 상표브로커로 인한 피해사례가 심심치 않게 언급되고 있다. 상표브로커란, 실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상표를 선점하여 타인에게 사용료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여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자를 말한다. 상표브로커들은 타인이 이미 사용하는 상표를 등록받아서 사용료나 합의금을 요구하여 영세상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유명연예인 이름 등을 상표등록 받아서 창작자들의 수익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 알려진 상표를 국내에서 선점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고 국가 이미지를 훼손시키며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유발하기도 한다.

기존에는 상표브로커 행태에 대한 이해 없이 개별 등록요건 저촉 여부를 단편적으로 심사하여 문제 소지가 있는 상표들이 등록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표브로커들의 권리 등록을 원천적으로 저지할 수 있도록 심사가 강화된다.

**첫째,** 특허청 심사관이 직권으로 상표사용실태를 조사한다. 종전에는 정보제공이나 의의신청에 의존한 심사로 상표분쟁 소지가 있는 상표들을 확인하는 것에 소극적이었다. 앞으로는 심사관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모방상표, 인기연예인 또는 프로그램 명칭 여부 등을 직접 점검하여 적극적으로 심사에 반영할 것이다.

**둘째,** 상표사용의사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상표사용의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구체적인 확인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형식적인 확인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유사관계가 없는 다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정하거나 인공위성·반도체와 같이 개인이 생산하기 어려운 상품을 지정하는 경우, 식별력이 없거나 모방이 의심되는 상표들을 무더기로 출원하는 경우 등 상표사용보다는 선점 목적으로의 출원이 의심되는 경우는 사용의사 확인을 거치도록 할 것이다. 이 경우 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등록을 거절할 방침이다.

**셋째,** 연예인 이름, 방송프로그램 명칭 등을 모방하여 출원한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종전에는 어떤 거절이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상표가 일부 등록되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출원된 상표 중 저명한 연예인명칭을 모방한 것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되어 등록이 거절된다. 또한, 유명 방송프로그램이나 타인의 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함으로써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법 제7조 제1항 제11호)라든지 국내외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진 선사용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방출원한 경우(법 제7조 제1항 제12호) 등 구체적인 사안별로 적용조문을 적시하여 이러한 출원이 등록되지 않도록 심사할 계획이다.

**넷째,** 외국기업의 총판이나 대리점 등의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외국기업의 동의 없이 국내에 상표출원 할 수 없도록 심사기준을 보완했다. 종전에는 대리인이나 대표자의 범위를 협소하게 인정하여 외국기업의 동의 없는 출원이 등록되기도 했다. 앞으로는 정식계약에 의한 대리인이나 대표자뿐만 아니라 구두계약을 통한 대리인과 대리인의 자회사도 대리인으로 보아 이들이 외국기업의 동의 없이 출원하면 등록 거절시킬 것이다.

기업들은 마케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간단하거나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상표를 등록받고자 한다

지나치게 엄격한 심사는 참신한 브랜드 개발을 저해하고 기업의 효율적인 마케팅에 악영향을 미친다



- 1) 타인의 저명상표의 명성을 손상시키거나 식별력을 약화하는 등의 행위
- 2)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이 준비 중인 상표를 먼저 출원하는 등의 행위

**다섯째,** 도형과 결합된 상표라도 전체적으로 성질표시인 상표는 등록이 거절된다. 그동안 식별력 있는 문자·도형이 작게 표시되고, 원산지·원재료 등 식별력 없는 표시가 부각된 상표들이 상당수 등록되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성질표시로 인식될 수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도록 심사기준이 개정된다.

**가치 있는 상표등록 확대**

반면 소비자에게 쉽게 어필할 수 있고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상표들이 보다 손쉽게 등록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기업들은 마케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간단하거나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상표를 등록받고자 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LOCK&LOCK', '애니콜', 'K2', 'HP'와 같은 상표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표는 그동안 식별력이 없다고 하여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나치게 엄격한 심사는 참신한 브랜드 개발을 저해하고 기업의 효율적인 마케팅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첫째,** 성질표시의 제도적 취지 및 판단근거를 심사기준에 명시하여 합목적적 심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간접적·암시적 표시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경쟁업자 간에 공정한 경쟁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둘째,**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요건이 완화된다. 간단하고 흔한 상표들은 식별력이 없으므로 권리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상표라면 당연히 식별력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 상표심사 과정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너무 엄격하게 인정하여 일부 거래사회 현실과 괴리된 심사결과가 발생하기도 했다. 심지어 'GS', 'NH'와 같은 대기업 상표도 과거 심사 단계에서 권리 등록이 거절된 경험이 있다. 이와 같은 심사는 기업의 원활한 브랜드 관리 활동에 장애가 되고 불필요한 상표분쟁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K2'의 경우 심사단계에서 상표등록이 거절되어 짝퉁 업체들에 대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

앞으로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을 무조건 등록거절하는 대신 심사관이 상표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요건은 기존에는 저명상표 정도의 식별력을 요구하였으나 특정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으면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완화된다. 다만,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사용한 것과 동일한 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지정하여 출원해야 한다.

**보다 빠르고 편리한 심사서비스 제공**

상표출원은 특허출원에 비해서 쉽다. 그래서 대리인 없이 출원하는 비중이 더 높는데 그 때문에 상표가 오히려 특허에 비해 절차적인 흠결이 발생하기 쉽고 권리등록 과정이 어렵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특허청에서는 출원인 편의제고 및 규제 완화 등을 위하여 몇 가지 심사 관행을 개선했다.

**첫째,** 표장의 보정 인정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출원상표의 표장을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요지변경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표장의 보정이 인정된다. 먼저 부기적인 부분에 대한민국 국기 등이 포함되어 등록 거절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삭제 보정하는 것이 인정된다. 또한, 입체·홀로그램·동작·위치상표의 경우 건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복수의 도면·사진 중 일부를 삭제하더라도 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보아 보정이 인정된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표장으로 변경하여 거절이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재출원하지 않고도 권리등록이 가능해진다.



**둘째,** 불필요한 절차가 반복되지 않도록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국제상표심사에서는 지정상품에 대한 직권보정 규정이 없었는데, 국내상표심사처럼 상품명칭이 중복 기재되거나 영문철자 및 영문구두점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트레이드 드레스 등 특수한 상표에 대한 심사기준 체계를 정비했다. 특수상표들은 도입 초기 심사에 대한 지침이 미흡하여 일관성 있고 전문적인 심사 및 출원서 작성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특수상표의 내실 있는 권리범위 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심사기준을 정비했다. 색채, 소리, 냄새 등은 처음부터 상표로 기능하는 것들은 아니므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해야 한다. 그리고 상표 설명도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입체상표의 경우 문자가 결합되어 있으면 일반상표와의 동일·유사 여부도 검토하여 등록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넷째,** 보다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차 심사처리기간은 8.9개월로 미국 3.2개월, 일본 4.7개월에 비해서 매우 늦다. 지속적인 심사처리기간 단축노력을 통해 2013년에는 8개월 이내, 2015년까지는 5개월 이내로 처리기간을 단축시키도록 하겠다.

#### 남은 과제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좋은 상표 창출을 위한 특허청 상표심사 패러다임 변화가 시작됐다. 청사진에 따라 심사 관행이 정착되면 소극적이고 기계적인 심사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합목적적 심사가 이루어져 가치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에 부합하는 상표 등록이 활발해질 것이다. 심사기준의 정비만으로 부족한 점은 상표법을 개정하여 보완할 계획이다.

누구든지 불사용취소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청구인 적격을 확대하고, 취소심결이 확정되면 심판청구일로 소급하여 권리가 소멸하도록 불사용 취소심판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또한, 저명상표 희석화<sup>1)</sup> 방지규정 및 신의칙에 위반한 출원<sup>2)</sup>을 거절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 등도 개정 상표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심사정책의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출원인의 인식 전환이다. 모방출원, 상표 선점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거나 상표권 확보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는 상표·브랜드 경쟁력 제고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창조경제 시대 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하여 상표에 대한 건전한 관심이 사회 전반에 걸쳐 퍼져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발명특허

IP Focus  
02

# 소프트웨어(SW) 특허의 위기







김경환  
법률사무소  
민후 변호사

소프트웨어 특허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1980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Diamond v. Chakrabarty 사건에서,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특허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기틀을 마련한 다음 그 이듬해인 1981년 Diamond v. Diehr 판결에서, 합성고무의 가공과정에서 아레니우스 공식을 결합한 알고리즘이 포함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하여 특허성을 인정하였는데, 이것이 소프트웨어 특허의 시초이다.



### 역풍을 맞고 있는 소프트웨어 특허

Diehr 판결 이전에 소프트웨어 발명은 저작권법이나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았다. 하지만 저작권은 소스코드의 표현만을 보호하고 있어 소스코드에 포함된 기술적 사상에 대한 모방에 대해 속수무책이었고, 영업비밀은 인정요건의 엄격성, 공개된 경우의 영업비밀성 불인정, 제3취득자에 대한 권리 주장의 제한성 때문에 이 역시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방안으로는 미흡했다. 때문에 소프트웨어 보호 측면에서 특허인정의 정책적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었으나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았다.

소프트웨어는 계산방법이나 추상적인 알고리즘에 불과하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은 아니며, 빠른 기술변화와 짧은 생명주기를 가진 소프트웨어를 특허로 보호하기는 부적절하다. 또한 선행기술을 조사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공개로 인하여 모방이나 복제가 매우 쉽고, 소프트웨어 발명은 기존의 것의 약간의 수정·축적 및 시행착오적 발견이 다수이기 때문에 진보성을 인정하기도 곤란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보호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특허는 영업발명(BM) 특허와 함께 자리를 잡아갔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특허 제도를 운용한지 30년이 넘어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소프트웨어 기업들로부터 소프트웨어 특허가 과연 혁신에 기여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산업적·경제적 유용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여론이 늘고 있다. 역풍을 맞고 있는 소프트웨어 특허. 역풍의 현황과 그 이유에 대해 분석해 보자.



### 뉴질랜드 특허법 : 소프트웨어 특허의 폐지

2013년 8월 28일, 뉴질랜드 의회는 5년간의 긴 논쟁 끝에 소프트웨어 특허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특허법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뉴질랜드에서는 더 이상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특허가 나올 수 없게 됐다. 다만 기존의 등록된 소프트웨어 특허나 출원된 특허에 대해서는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술의 발전이나 시대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영국 특허법을 모방한 뉴질랜드 특허법(Patent Act 1953)의 개정작업이 2000년도부터 시작되었고, 이때 소프트웨어 특허나 영업발명 특허의 폐지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리고 2008년 주디스 티자드(Judith Tizard)에 의하여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개정법안이 의회에 제출됐다. 이후 5년 동안 3번의 심사 및 약간의 개정 끝에 드디어 의회를 통과했다.

소프트웨어 기술은 기본적으로 특허제도와 부합하지 않으며, 기존의 소프트웨어 특허를 참조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특허를 발명할 수 없기에 소프트웨어 특허제도는 혁신과 경쟁을 저해한다는 점. 그리고 소프트웨어 특허의 모호성과 광범위성은 특허괴물에 의해 남용되어 왔으며,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발달해 온 오픈소스 모델과 상치된다는 이유에서 이러한 법안이 제안되었고, 의회를 통과하여 드디어 파격적인 법률이 완성됐다.

그 과정에서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여 다수의 소프트웨어 특허로써 이미 견고한 성(城)을 구축한 소프트웨어 대기업은 소프트웨어 산업보호를 명목으로 이 법안에 반대하였지만, 이들을 추적하는 다수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기존의 소프트웨어 특허 때문에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더 이상 혁신과 경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찬성했다. 소프트웨어 산업계에서 내분이 발생했지만 뉴질랜드에서는 후발 주자들이 승리한 것이다.



### 미국 백악관 보고서 : 소프트웨어 특허의 개선

미국은 특허괴물에 의한 특허제도의 기능상실에 대해 일련의 입법 및 행정명령 등을 통하여 매우 강하게 대처하고 있다.

의회는 ❶ Saving High Tech Innovators from Egregious Legal Abuse Act(SHIELD), ❷ Patent Quality Improvement Act, ❸ End Anonymous Patents Act, ❹ Patent Abuse Reduction Act, ❺ Patent Litigation and Innovation Act, ❻ Stopping Offensive Use of Patents Act(STOP) 등의 각종 특허괴물 규제 법안을 쏟아내고 있으며, 행정부 역시 'Fact Sheet : White House Task Force on High-Tech Patent Issues'라는 제목으로 특허괴물 규제와 관련된 7개의 의회 권고와 5개의 행정명령을 발했다. 이러한 행정부의 의회권고와 행정명령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특허 주장과 미국의 혁신'이라는 보고서이다.

백악관이 주축이 되어 2013년 6월경 발표한 위 보고서에 따르면, 특허괴물 현상에 대하여 분석하면서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을 명시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즉 특허괴물에 의하여 피고가 된 기업 중 무려 82%가 소프트웨어 특허 때문에 소송을 당했으며, 이러한 수치는 화학 특허보다 5배나 많은 수치이다. 소프트웨어 특허는 특허괴물이 선호하는 특허 형태이며 특허분쟁의 급증 및 특허괴물의 창궐 현상을 가속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특허에서 많이 사용되는 권리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한 기능적 청구항은 특허괴물의 소프트웨어 특허 악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소프트웨어 특허의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특허괴물 현상을 잠재우기 위해 소프트웨어 특허의 명확성을 높이고 기능적 청구항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했다.

백악관은 특허괴물 현상을 통해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뉴질랜드와 달리 소프트웨어 특허제도의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 빌스키 판례 및 CLS 은행 판례 : 소프트웨어 특허의 부정

2010년 6월경 미국 연방대법원은 Bilski v. Kappos 사건에서 에너지 관련 중개인이 날씨 변화에 따른 소비량 감소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가격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빌스키의 영업발명에 관해 그 특허성을 부정함으로써, 영업발명에 관한 특허를 최초로 인정한 1998년 State Street 사건 이후 증가 추세에 있는 영업발명 출원 경향에 제동을 걸었다. 이후 이러한 경향은 Mayo v. Prometheus 사건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2013년 5월경 7개의 의견으로 나뉘어 치열하게 다투면서 135페이지의 판결문을 작성한 CLS Bank v. Alice Corp. 사건에서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사들 중 다수는(비록 정족수 미달로 법적 선례가 되지는 못했지만) 앨리스사의 등록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CLS 은행의 주장을 심사하면서 앨리스사 명의로 등록된 컴퓨터로 처리되는 방법 발명 및 이 방법 발명에



관한 명령어를 담은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발명이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면서 특허무효성을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CLS Bank v. Alice Corp. 사건으로 인하여 앞으로 수많은 소프트웨어 특허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 독일 의회의 제안서 등

위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 2013년 4월 독일 의회는 행정부에게 소프트웨어 특허 등록을 제한해 달라는 내용의 제안서(Secure Competition and Innovation in the software development)를 보내기도 했다. 이 제안서에서 독일 의회는 소프트웨어 특허가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기술 혁신에 저해가 되며, 소프트웨어 보호는 저작권법적 보호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리고 오픈소스 운동을 하는 FSF(FreeSoftware Foundation) 단체 등은 지속적,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특허 폐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소프트웨어 특허제도가 커다란 반대 물결에 직면해 있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특허를 획득하기 위하여 거액의 투자를 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다.

하지만 특허제도의 원래 목적인 혁신을 방해하고 특허괴물의 성장에 기여하면서 금전획득 목적의 부당한 특허분쟁을 증가시킨다면 어느 정도 수술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단순한 추측이나 외국의 움직임을 모방하여 선불리 움직일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접근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특허

IP Focus  
03최근 국제지식재산권  
동향에 관한 고찰

특허덤불, 스마트폰 사례,  
필수표준특허 및 특허괴물을 중심으로

#### 특허덤불 문제와 해결방안

특허덤불이란 '어떤 회사가 새로운 기술을 실제로 상용화하기 위해 헤치고 나아가야 하는 거미줄처럼 두렵고 중복되게 짜인 지식재산권의 집합'을 지칭한다. 특허덤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특허덤불로 인해 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사업자의 혁신 활동이 매우 어려워짐으로써, 경우에 따라서 독점 규제에 관한 논의가 촉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1)</sup>

특허덤불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로 흠어진 지식재산권을 갖는 기술 분야의 사례와 블로킹 특허(blocking patents, 차단특허)를 갖는 기술 분야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먼저 흠어진 지식재산권을 갖는 기술 분야의 경우, 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다수의 지식재산권자 모두에게 기술료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기술료 축적' 문제가 대표적이다. 두 번째 블로킹 특허의 문제는, 특히 고급기술 분야에서 많은 양의 특허가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상호 보완적인 특허 관계가 있는 필수적인 특허를 특정 특허권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자체의 가치보다 더 큰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특허덤불의 문제는 특허풀<sup>2)</sup>과 표준화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특히 특허풀은 흠어진 지식재산권을 갖는 기술 분야에서 특허덤불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표준화는 많은 특허가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기술 분야에서 자주 나타나며 표준화의 최근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공정, 합리적, 비차별을 뜻하는 FRAND(Fair, Reasonable, Non-Discriminatory) 규정에 있다. 따라서 표준화는 블로킹 특허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흔히 특허매복 행위로 지칭되는 기술 표준화 과정의 특허 미공개 행위는 대표적인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로, 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절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sup>3)</sup>

#### 스마트폰 특허 전쟁, 혁신의 잠재력을 떨어뜨리다

스마트폰 시장의 개방성 정도를 살펴보고 방대한 양의 특허 포트폴리오의 소유와 집행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자. 기술 분야는 크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통신 특허로 분류했다.<sup>4)</sup> 먼저 특허를 소유하는 것과 시장 점유율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어떤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면 특허 허여 건수는 1년 내지 3년 후에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 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Patent Thickets, November 2011.

2) 복수의 특허권자가 각각 보유하는 특허를 취합하여 상호간에 또는 제3자에게 공동으로 라이선싱해주는 상호간의 협정

3) 공정거래위원회 제80호,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2010. 3. 31. 일부 개정

4) Fordam Law School, CLIP, The Impact of the Acquisition and Use of Patents on the Smartphone Industry, December 13, 2012.



박시영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과장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최근 애플과 삼성의 특허전쟁이나 특허괴물의 특허침해소송 남발 등을 통해 이러한 특허제도 본연의 목적이 잘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특허와 독점규제의 관계가 재조명되는 등 어떻게 하면 특허제도 본연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을지 그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혁신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특허덤불과 특허괴물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이 스마트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간 간극이 존재하는 것은 미국 특허상표청의 심사처리 기간에 기인하며, 사례로는 애플과 구글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리고 특허를 소유하는 것과 소프트웨어 시장 점유율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애플이나 구글 같은 운영 체제를 주로 만드는 회사는 먼저 소프트웨어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반을 마련한 후에 통신 특허 포트폴리오를 늘리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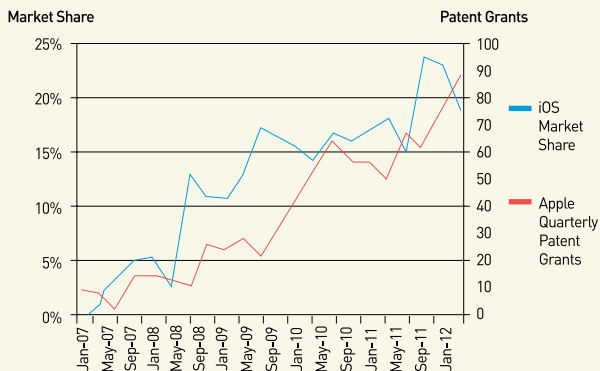
다음으로 특허를 소유하는 것과 스마트폰 기기 시장 점유율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자. 삼성전자의 경우는 하드웨어 특허에서 통신특허로 초점이 바뀌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가장 많은 디자인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이점이다.

다음으로 특허소송에 관해 살펴보면, 스마트폰 관련 소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특허는 통신 특허로 대략 전체 특허소송 중 60% 이상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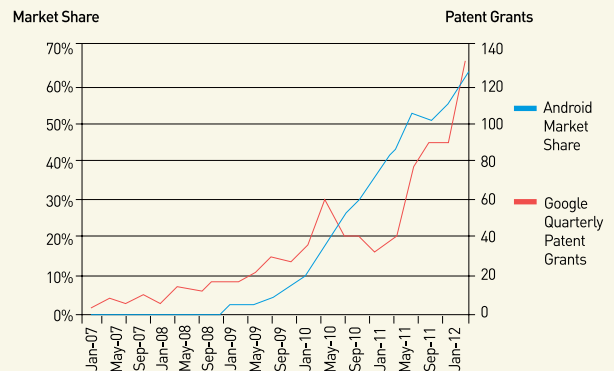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운영 체제를 생산하는 회사나 스마트폰 기기를 생산하는 회사 모두 방대한 양의 통신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애플은 스마트폰 관련 회사 중에서 가장 공격적인 소송 전략을 택하는 회사로 보인다. 2011년 이후 스마트폰 관련 특허소송을 급증하게 한 장본인으로, 그 여파로 인해 많은 스마트폰 관련 회사들이 방어를 목적으로 방대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사들이게 됐다. 그러나 미국에서 가장 많은 스마트폰 관련 소송을 불러일으킨 집단은 특허괴물로 불리는 Patent Assertion Entities(PAEs)이다. 이들이 불러일으키는 소송은 전체 스마트폰 관련 소송에서 30~40%를 차지한다. 애플 같은 제조회사는 침해소송을 다른 제조회사를 상대로 선택적으로 제기하는 반면, PAEs는 다수의 제조회사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제기하는 행태를 보인다.

〈특허 소유와 시장 점유율의 상관관계〉



Market Share and Patent Grants  
Apple



Market Share and Patent Grants  
Google

마지막으로 시장의 개방성을 살펴보면, 시장은 경쟁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특허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 움직이기 보다는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등 고객의 선택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단순히 특허를 많이 보유하는 것에 따라 시장 점유율이 달라지기보다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시장을 선점하는지에 따라 시장 점유율이 움직이는 것이다. 즉, 애플과 삼성전자는 시장에서 승자가 된 반면에 RIM과 노키아는 시장에서 몰락한 것이 좋은 사례이다. 빈번해지는 특허소송으로 인하여 방어 목적의 특허 포트폴리오 매입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혁신을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하지 않으며, 향후 혁신의 잠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PAEs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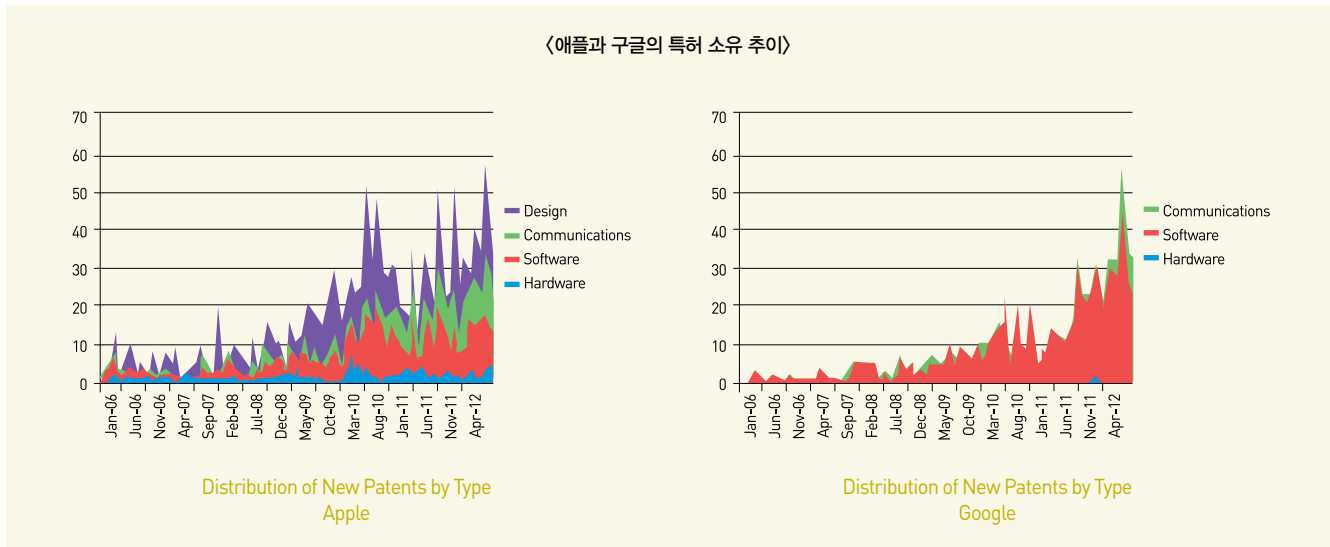
**특허에도 표준이 있다, 필수표준특허**

기술표준에 포함된 특허를 가진 특허권자는 관련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일단 표준으로 선정된 기술을 다른 기술로 대체하는데는 상당한 전환비용이 소요되어 특허권자는 특허지체<sup>5)</sup>를 통해 경쟁자를 시장에서 몰아내거나 필요 이상으로 과다한 로열티를 받아낼 수도 있다. 특허권자가 자발적으로 FRAND 규정으로 실시 허락할 것을 사전에 공표한 경우에는 필수표준특허 침해 시 주장할 수 있는 구제방법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sup>6)</sup> 경우에 따라서는 금지명령이나 수입금지 결정은 공공의 이익에 반할 수 있으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수입금지 결정 요청을 거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경우는 수입금지 명령이 적절한 구제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FRAND 규정에 부합되는 로열티 지급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FRAND 규정에 부합되는 로열티를 산정하기 위한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거부도 실제적인 거부뿐만 아니라 해석상의 거부, 다시 말하면 FRAND 규정에 부합되는 로열티와 상당한 괴리가 있는 로열티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결론적으로 어떤 회사가 FRAND 규정에 부합되는 로열티 지급을 위한 협상을 계속해 왔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수입금지 결정이 내려져서는 안 될 것이다. 즉, 특허권자가 자발적으로 FRAND 규정으로 실시 허락할 것을 사전에 공표한 경우에는 필수표준특허 침해 시 주장할 수 있는 보다 적절한 구제방법은 금전적인 손해배상이어야 한다. 유럽의 법원은 미국의 그것과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삼성전자 반독점 조사에 따른 타협안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sup>7)</sup> 그러나 최근 오바마 행정부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애플 제품 수입금지 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 관계를 살펴 볼 때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는 이미 자사의 필수표준특허를 30개 이상 기업에 라이선싱해 주어서 FRAND 규정을 위반한 특허지체를 하지 않았다는 점, 애플이 삼성전자의 필수표준특허가 유효하고 이를 애플이 침해했다는 연방순회 항소법원(CAFC)의 판결 전에는 로열티를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버틴 점 등을 살펴보면 오히려 애플이 역특허지체를 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sup>8)</sup>

**발품을 숨긴 특허괴물의 위험**

특허를 사 모으고 관리하는 회사들은 발명자와 특허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중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괴물로 불리는 일부 중개자들은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들은



5) Patent hold-up. 특허권자가 제시하는 고객의 로열티에 침해자가 동의하도록 압박하기 위하여 침해자의 실시를 차단할 목적으로 법원의 금지명령 등을 이용하는 것을 말함.  
 6)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USPTO, Policy Statement on Remedies for Standard-Essential Patents Subject to Voluntary FRAND Commitments, January 8, 2013.  
 7) 조선일보, 2013년 10월 18일자, 삼성전자 제안: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에 합의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필수표준특허 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라이선스 계약에 합의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경쟁업체가 먼저 판매금지 소송을 하는 경우에만 방어차원에서 판매금지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임.

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일을 하기보다는 더 많은 로열티를 얻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sup>8)</sup>

특히 다음과 같은 미국 특유의 제도는 이들이 활동하기에 더욱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다. 등록된 미국특허에 대한 유효성 추정, 비즈니스 모델 및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인정, 승소 여부에 관계없이 양 당사자가 법률 관련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방식, 고비용 소송구조, 고의침해 시 손해배상액의 증액, 소송이 성공하는 경우에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변호사 수입 제도 등이 그것이다.

특허괴물의 특징을 보다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일단 그들은 특허를 실시하지 않고, 기술 이전에도 힘쓰지 않으며, 기업이 막대한 투자를 한 후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다. 기업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낼 목적으로만 특허를 사들이며, 특허를 실시하지 않는 위치를 활용하여 반소를 할 수 없게 만들고, 권리범위가 불분명한 특허를 사들여 대다수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비용과 대비하여 적당한 액수의 로열티를 받아내려고 한다. 명의법인 회사(shell company)를 활용하여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합의하는 기업에게는 비공개 협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여 다수의 피고들이 공동방어전략을 취할 수 없도록 만든다. 특허괴물은 2012년에만 미국에서 총 특허침해 소송 건수의 62%에 해당하는 약 2,500건의 소송을 남발했다. 특히 최근 특허괴물에 의한 소송은 IT분야에 집중되고 있는데, 특허괴물에 의한 소송 중 82%는 소프트웨어 특허에 의한 것이었다. 특허괴물은 광범위한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는 침해를 입증하는 증거에 근거하기보다는 적당한 비용으로 합의를 할 회사를 찾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은 엄격한 심사를 기반으로 하는 고품질 특허심사, 특허의 유효성에 대하여 보다 쉽게 판단 받을 수 있는 제도의 도입, 비교적 저렴한

소송제도 수립, 금지명령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 등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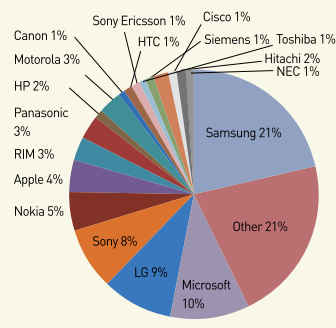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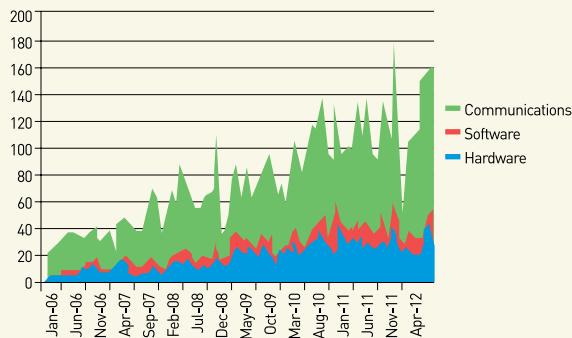
**시사점**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지식재산권이 존재하는 기술 분야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하는 경우 일어날 수 있는 특허덤불 문제는 특허풀이나 표준화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의 사례에서 보듯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창의적인 노력이 있다면 시장에서 중요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표준화에 참여한 필수표준특허는 특허지체라는 문제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수입 금지나 판매금지를 청구 하는데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현 상황에서 오히려 가장 큰 문제는 특허덤불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특허괴물로 불리는 PAEs의 문제로 이들은 특허제도에 기생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이들의 존재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허제도 생태계 자체를 이들이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꾸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특허의 질을 향상시키고 특허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저비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법제도의 개혁을 들 수 있다. 이런 방향에서 살펴볼 때 특허심사정책 방향을 종합적인 지식재산권 품질 향상으로 설정한 특허청의 최근 정책 방향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며, 많은 기간 담보 상태인 변리사, 변호사 공동대리 및 특허소송의 관찰 집중은 국익을 위하여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발명특허

〈삼성전자의 특허 소유 추이 및 디자인 특허 점유율〉



8) 헤럴드경제, 2013년 8월 12일자, 역특허지체 : FRAND 규정 위반을 들어 특허권자에게 로열티 지급을 하지 않고, 특허권자로 하여금 높은 비용의 소송을 감당하게 하며, 수입금지 결정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지칭함.

9)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Patent Assertion and U.S. Innovation, June 2013.

IP Focus  
04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전략







이근호  
테크아이피엠 대표

미국, 유럽은 물론 최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불황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 '지식재산'이 주목받고 있다. 지식재산이란 창의적 지적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무형재산으로 창의적 지적활동의 결과가 사회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재산적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대상으로 특허,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이 대표적 예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인 특허를 예로 하여 창조경제 실현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 지식재산과 경제성장의 연관 관계

최근 미국 정부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 지식재산 집약형 기업이 미국 일자리 전체의 27.7%인 4000만개의 일자리와 미국 GDP의 34.8%인 5조600억 달러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했다고 한다. 그만큼 지식재산과 경제성장과의 연관관계가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관관계만 보고 단순히 지식재산 육성이 경제성장을 만들어낸다고는 할 수 없다.

최근 많은 경제학자들이 전 세계 경제선진국의 특허창출과 경제성장과의 연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경제성장 결과에 따른 특허창출의 증가는 직접적 연관성을 보여주지만 특허창출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증거는 없었다는 것이다. 즉, 특허는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혁신활동의 부산물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지식재산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이루려면 인의적인 노력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미국의 지식재산을 통한 벤처육성

미국 코프만 재단의 2010년 연구결과에 의하면 1977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핵심 기여요인으로 신생 벤처기업을 들고 있다. 조사 기간 동안 이들 신생 벤처기업들이 창출한 일자리는 연 평균 300만개로 전체 일자리의 18%에 이른다.

실리콘 벨리의 성공한 벤처사업가인 헨리 R. 닛해프트는 그의 저서 'Great Again : Revitalizing America's Entrepreneurial Leadership'에서 미국이 현재의 경제불황을 극복하고 경제적 리더십을 유지하는 방안은 신생 벤처기업의 육성에 있으며, 이들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통하여 신생 벤처기업들이 공정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유치에 적극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지식재산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추진해볼만한 전략으로는  
기존 지식재산을 활용한  
신생 벤처기업의 육성이다

####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방안

최근 정부와 금융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는 지식재산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이루려는 인의적인 노력에 잘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최근 도산한 기업들에 의한 특허매물의 증가와 글로벌 ICT 기업 간의 특허전쟁 및 특허괴물의 공격에 대비한 특허매입 수요의 증가가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도 특허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 수익성 또한 매우 높아 월스트리트 투자기관들의 특허에 대한 투자 또한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특허펀드 투자모델들이 만들어지면서 발달된 지식재산 금융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특허가 금융투자 대상으로 인식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정부주도의 인의적인 투자가 어느 정도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 거론되고 있는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의 방안은 다음과 같다. 지식재산을 담보로 지식재산 집약형 기업에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지식재산 펀드를 조성해 지식재산 거래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다. 이는 지식재산 시장형성의 활성화와 관련 법 제도 정비를 통해 지식재산 투자와 지식재산 거래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여 지식재산 시장 및 생태계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창의적 특허사업 개발, 성공으로 가는 길

지식재산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추진해볼만한 전략으로는 기존 지식재산을 활용한 신생 벤처기업의 육성이다. 예를 들면 미활용 특허들을 활용한 신사업 모델 개발과 사업화 연계를 통한 신생 벤처기업의 형성이다. 최근 전 세계 약 250조 시장을 형성한 스마트폰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데 반드시 최첨단 기술이 필요하지는 않다. 얼마든지 기존의 기술을 새로운 사업아이디어에 결합하여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한 시장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정부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만들어진 공공 연구기관의 특허를 재활용하여 형성한 지식재산 기반의 신생 벤처기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식재산 금융지원에 의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추진해보면 어떨까 한다. 관건은 특허를 신사업에 연계할 수 있는 전략과 새로운 시장창출을 할 수 있는 창의적 사업 아이디어의 개발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 지식재산 강국의 핵심은 인재양성

앞서 논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및 창의적 특허사업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갖춘 창의성 있는 지식재산 전문가가 필요하다. 미국에서도 최근 특허의 기업경영 및 금융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역량을 갖춘 지식재산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를 지식재산 전략가(IP strategist)라 부르고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 전략가가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식재산 전략가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특정기술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다. ICT 분야를 예로 들면 컴퓨터, 통신, 네트워크, 응용 시스템 분야의 HW/SW/시스템/응용 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을 들 수 있다. 다음 요건으로는 기술개발 및 경영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다. 사업과 연관된 기술/상품/서비스 개발 전문성 및 경험 등이 있다. 그리고 특허법에 대한 전반적 이해 및 특허작성 및 특허출원 과정, 특허소송 등에 대한

전문성을 들 수 있으며, 기술 및 제품·서비스 관점에서의 특허분석 능력으로 특허조사·분석, 청구항 분석, 특허 실사, 전략적 특허 포트폴리오 개발능력 등을 따져 볼 수 있다.

또한, 사업전반을 아우르는 특허경영 능력으로 특허전략과 사업전략과의 연계, 기술·사업·법무 업무영역 간 조정 능력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라이선스, 가치평가, 전략적 특허거래, 특허현금화 모델개발 등 특허활용 전반에 관한 전문성을 지식재산 전략가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들 수 있다.

### 창조경제의 실현과 발전

현재의 경제기조를 대표하는 지식기반 경제는 초기 정보통신 혁명의 '네트워크 경제'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핵심 국정목표로 설정한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로 그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어떻게 경제적 가치창출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는가'이다. 세계 경제대국들이 창조경제시대의 주도권을 잡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창조경제의 선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전략 마련과 추진이 필요하다. 과거 네트워크 경제의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는 강력한 정부의 리더십과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하여 네트워크 경제의 선도국이 되었다. 창조경제시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기대한다.

이 글에서 제시한 지식재산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대한 아이디어가 우리나라가 창조경제시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발명특허



●● USA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법조약 이행을 위한  
 특허심사절차  
 최종 규칙 발표**

출처 : www.bna.com

지난 10월 21일, 미국 특허상표청(이하 'USPTO')은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PLT) 이행을 위한 특허심사절차의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이는 2012년 12월, 미국이 「산업디자인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과 「특허법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특허법조약이행법(Patent Law Treaties Implementation Act of 2012, PLTIA)」을 승인 하면서, 그에 따라 기존 특허심사절차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 그 배경이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오는 1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 ① 출원요건 완화 : 종래 정규출원은 청구항을 포함해야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청구항 기재 없는 정규출원도 출원일로 인정됨. 다만, USPTO가 출원일로부터 8개월 내에 해당 출원을 심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허존속기간조정(Patent Term Adjustment, PTA)\*\*\*\*이 제한될 수 있음
- ② 포기된 출원의 회복 등 : 고의 없이 지연\*\*\*\*\*되어 포기된 출원의 회복 및 지연된 수수료의 납부를 허용하여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
- ③ 기타 : 최종 규칙에서 보충심사, 발명자의 선서 또는 선언, 미국 발명법에 따른 선출원규정과 관련된 시행규칙이 다소 개정됨

USPTO는 동 개정으로 특허출원 절차의 유연성이 확대되고, 국제출원과의 통일화·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어 국내외에서의 특허보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동 규칙은 2013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며 원문은 <http://pub.bna.com/ptcj/78FR62368.pdf> 에서 확인 가능함.

\*\* 「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헤이그협정은 하나의 출원서로 유럽연합을 포함한 60개 당사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국제 산업디자인 출원에 관한 조약임.



China

중국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인터넷 환경에서의 지식재산 독점규제에 관한 입장 표명

출처 : www.iprchn.com



Japan

## 일본 Panasonic 등, 광디스크드라이브(ODD) 특허 침해로 미국 ITC의 조사 착수

출처 : www.nikkei.com

\*\*\* 「Patent Law Treaty of 2000.」. 특허법조약(PLT)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각국 특허청이 지국 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절차의 최대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당사국의 특허청은 이 요건 내에서 절차에 관한 법을 운용해야 함.

\*\*\*\* 특허권은 등록된 이후에 발생하므로 USPTO의 심사지연으로 특허등록이 늦어진다면 출원인이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불합리하게 줄어들 수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특허존속기간조정(Patent Term Adjustment, PTA) 규정을 둠. 이에 따라 USPTO의 심사절차가 지연되어 특허등록까지 3년 이상 소요된 경우, 3년을 초과한 기간만큼 특허 존속기간을 연장시켜줌으로써 등록 후 17년의 특허권 존속기간을 보장함.

\*\*\*\*\* 최근 연방순회합소법원은 「고의가 아닌」의 기준에 대하여 이는 사실에 관한 문제로 USPTO의 재량에 맡긴다고 판시한 바 있음.(Network Signatures, Inc. v. State Farm Mut. Auto. Ins. Co., No. 2012-1492 (Fed. Cir. Sept. 24, 2013))

지난 11월 12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등은 중국 선전에서 「2013년 W3C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인터넷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독점규제법의 조화를 강조했다.

SAIC\*\*는 공공의 영역인 인터넷 환경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률과 독점금지법이 양립하기 어렵지만 법규정에서 보호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지식재산권 독점규제에 관한 규정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2013년 이내 관련 규정의 공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서남 정법대학교 부교수 황후이 교수는 인터넷 환경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독점규제의 양립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황후이 교수는 인터넷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과도한 보호는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권리 남용은 시장 경쟁 질서를 해하므로 보호 가능한 지식재산권 및 인터넷 시장 질서 유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며, 독점규제를 통해 악의적인 지식재산권 침해를 억제하고 지식재산권 활용의 균형을 촉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컨소시엄이란, 인터넷 관련 국제 컨소시엄으로 웹 표준을 개발·제정함.

\*\* SAIC는 「중국 독점금지법」 제55조 규정을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말부터 「지식재산권 남용 행위 억제와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의 제정 작업에 착수함.

지난 10월 21일, 일본 Panasonic 등은 CD나 DVD 등에 사용되는 광디스크드라이브(Optical Disk Drive, 이하 'ODD')\*가 미국 Optical Device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사를 받게 됐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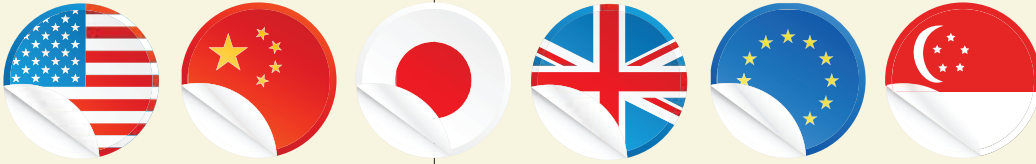
Panasonic에 따르면, 동 조사는 일본의 주요 전기 회사인 Nintendo, Toshiba와 한국의 삼성전자, LG전자 등 총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지난 9월, 미국의 Optical Device는 미국에 수입 및 판매되는 7개 회사의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제한적 수입 금지나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이와 관련해 ITC는 아직 조사 시작 단계로 제재 등과 관련하여 아무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향후 ITC의 결정은 60일 간의 대통령 검토 기간을 거쳐 대통령의 거부 없으면 확정된다고 언급했다.

\* ODD란, 정보를 저장하는 곳의 빛의 투과율, 위상, 편광 등을 변화시켜 정보를 넣고 이 변화를 빛으로 읽어내 정보를 얻는 광학적 방식에 의한 데이터 저장재생장치임.

\*\* IP Bridge는 지식재산펀드를 운영하며, 펀드로 조성된 자금으로 일본 기업에서 사용하지 않는 특허를 매입하여 이를 신흥국 및 중소기업에 대여해주는 사업을 실시함.



**UK**  
**영국 지식재산청,  
 음악가의 음원에 대한  
 저작권 기간 연장 발표**

출처 : [www.gov.uk](http://www.gov.uk)

지난 11월 1일, 영국 지식재산청(이하 'IPO')은 신규 법규를 통해서 실연자 및 음악가들의 음원에 대한 저작권 기간이 기존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IPO는 지난 1월 7일 저작권의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directive)\*의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실시한 바 있다.

IPO는 유럽연합 지침을 「2013년 실연자의 저작권 및 기간에 대한 규정」\*\*을 통하여 영국 국내법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실연자 및 음악가들은 음원 녹음이 발표되고 50년이 지난 후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음원 판매 수익의 20%를 세션 뮤지션 등 실연자에게 분배
- 프로듀서는 실연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서 로열티의 선지급 등의 공제 금지
- 음원이 상업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 실연자와 음악가들이 음원에 대한 그들의 권리 반환 요구 가능

한편, IPO 청장 Lord Younger는 동 신규 법규를 통하여 세계 최상급 예술가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창조적 산업에 대한 영국 정부의 지속적인 헌신과 지원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 저작권의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EU 지침(2011/77/EU)은 지난 2011년 11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EU 회원국은 오는 2013년 11월 1일까지 이 지침을 국내법에 반영해야 함.

\*\* 「2013년 실연자의 저작권 및 기간에 대한 규정(the Copyright and Duration of Rights in Performances Regulations 2013)」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EU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2013년 11월 1일 영국 기업혁신기술부(BIS)가 공포함. 동 규정은 음원에 대한 저작권과 음원에서의 실연자의 권리, 공동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 등의 보호기간을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EU**  
**유럽특허기구 행정협의회,  
 분할출원에 관한  
 유럽특허협약 이행규정  
 개정**

출처 : [www.epo.org](http://www.epo.org)

지난 10월 18일, 유럽특허기구\* 행정협의회(Administrative Council)는 유럽특허협약(EPC)2) 이행 규정의 개정 결정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 결정은 EPC 이행 규정의 규칙 제36조, 규칙 제38조 및 규칙 제135조에서 분할출원3) 제출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EPC 이행규정 개정 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규칙 제36조 제1항) 유럽 특허 출원과 관련된 분할출원을 신청할 수 있음
- (규칙 제38조 제4항) 분할출원과 관련된 추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음
- (규칙 제135조 제2항) 분할출원 제출 24개월의 기간제한이 폐지됨

 Singapore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독일 지식재산청과  
 지식재산권 업무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출처 : [www.ipos.gov.sg](http://www.ipos.gov.sg)

한편, 동 개정은 2014년 4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하며, 개정 결정은 2014년 4월 1일 및 그 이후에 제출한 분할출원에 적용될 예정이다.

\* 유럽특허기구(European Patent Organisation)는 1973년 제정된 유럽특허협약(EPC)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구로, 유럽특허청(EPO)을 집행기구로 두고 있음.

\*\* 유럽특허협약(EPC)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통합을 위해 1973년 체결되었고 이 조약에 근거하여 EPO가 설립됨. EPC 체결국은 EPO에 특허 출원을 함으로써 각 체결국에서 받은 특허와 동등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분할출원이란 하나의 특허출원에 20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에 그 일부를 분할하여 별개의 특허로 출원하는 것을 의미함.

지난 9월 24일,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과 독일 지식재산청(DPMA)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1회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총회에서 지식재산권 업무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국가는 동 MOU 체결을 통해 향후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 체결할 것에 동의하였으며, 싱가포르와 독일의 특허 절차에 관한 비교 연구 및 특허 허여 및 분쟁 해결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직원 교육 등에 관하여 합의했다.

또한 MOU를 통하여 양 국가의 기업의 특허 출원 시 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상호 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해 양 국가의 지식재산청장은 다음과 같이 부연했다.

DPMA는 Cornelia Rudloff-Schäffer 독일 지식재산청장은 이번 MOU가 독일과 싱가포르의 지식재산 업무 협력에 관한 초석이 될 것이며, 양 국가의 발명가와 기업들에게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IPOS는 Tan Yih San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장은 이번 MOU를 통해 양 국가의 관계가 한 단계 발전했으며, 싱가포르 기업들이 독일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식재산권 전문 인력의 교류를 통해 독일의 성공적인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POS는 동 MOU는 싱가포르가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협력을 촉진하는 노력의 일환이며, 향후 싱가포르 기업들의 시장 개척을 위하여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네트워크 구축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IPOS에 따르면 독일은 미국, 일본에 이어 싱가포르의 제3대 지식재산 교역국임.







# 시대를 앞서가는 IP리더를 양성한다



## 지식재산인력양성팀

최근 특허 등 기술의 융합화가 확산되고 거세지는 국제 지식재산 분쟁에 대응할 지식 재산 전문인력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지식재산 인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 양성팀은 지식재산 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대한 현실을 사전에 인식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관리하는 인력 양성은 물론, 지식재산 융합 발명교육 확산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할 인재양성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팀은 '제1차 국가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이 수립된 지난 2008년에 사업의 기반이 다져졌다. 이후 '산업인력양성팀'으로 팀 명칭이 변경되었고, 작년에 지식 재산인력양성팀으로 재탄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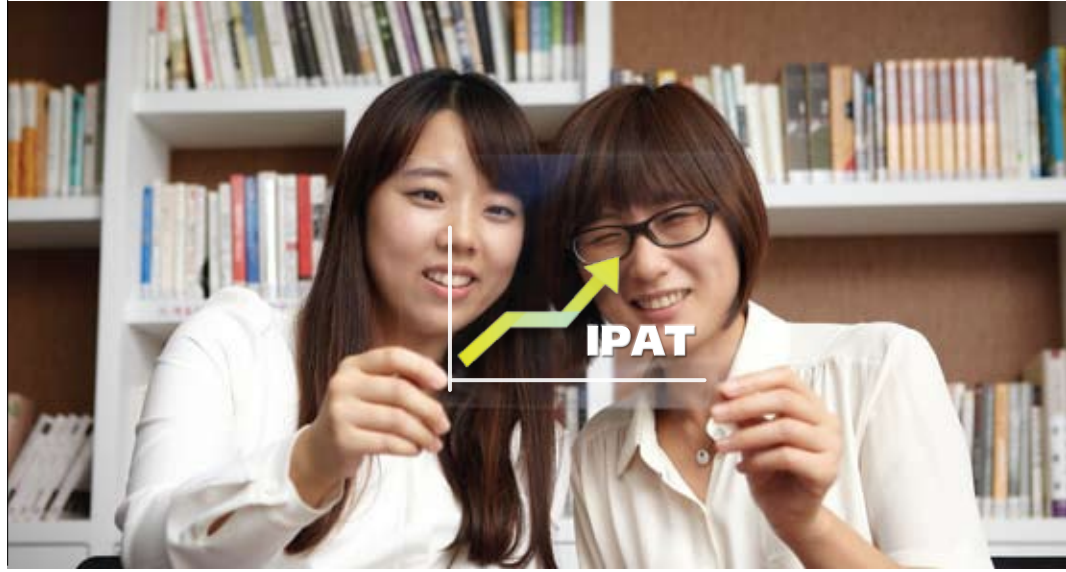
지식재산인력양성팀의 백인홍 팀장은 "미래 국가 경쟁력의 원천은 '사람'이라는 철학아래 창조 경제 핵심키워드인 '지식재산' 인재양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인재들이 많아질수록 기업, 더 넓게는 국가 경쟁력이 향상되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팀은 창조경제의 주역을 담당할 지식재산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가장 큰 역할 이자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식재산에 강한 연구인력 양성과 기업 등의 지식재산 실무 인력양성, 지식재산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이라는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대학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 지식재산 교육의 근간을 다졌던 대학 학술협정 교류를 계기로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 지식재산 강좌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2월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MIP)을 KAIST와 홍익대에 개설 지원하여 지식재산 분야 전문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대학의 자체적인 지식재산 교육역량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 창출 핵심인력인 대학교수 대상 교육프로그램(T3·Teaching The Teachers)을 통해 지식재산 겸임 교육자를 양성하고 있다. 더불어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CPU: Campus Patent Strategy Universiad), 대학창의발명대회 등 실전형·산학협력 공모전을 통해 대학(원)생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산업계에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개개인 모두 원하는 것이 다르므로 하나로 목표를 집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고비의 상황에서 극복해내려는 팀의 의지가 어느 팀보다도 강해야 합니다.”



### 효과적인 IP인재 양성법

이뿐만이 아니다. 지식재산인력양성팀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호계장은 “기업이 지식재산 강소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관리인력과 경영인력 양성을 위해 중소기업 등 기업 재직자 직무교육, 해외 특허분쟁 소송대응 전문교육, 청년 미취업자 대상 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식재산 취업포털 IPIN([www.ipin.or.kr](http://www.ipin.or.kr))은 지식재산 분야의 채용 및 인재정보, 지식재산 관련 최신 뉴스와 교육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다방면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지식재산인력양성팀은 탁월한 사업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학(원) 지식재산 교육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수진 과장은 “대학 이공계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교육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교육질 향상을 위한 교재개발, 강의 콘텐츠 제공, 표준교육 과정 지원 등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며 “작년에는 60개 대학에 266개의 강좌를 개설(수강생 11,796명)했으며, 올해는 63개 대학에 356개의 강좌를 개설(15,156명 예상)해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교수 지식재산 프로그램(T3)을 담당하고 있는 최동호 과장은 “지식재산 교수 프로그램(T3)을 통해 작년에는 374명, 그리고 올해는 10월 25일 기준 230명이 수료했으며, 교수교육 수료인원은 2008년부터 작년까지 334명 중 58.08%인 194명이 강좌 개설 및 운영하여 대학 내 지식재산 교육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자부심을 드러냈다.

### IP세상, IPAT으로 준비하세요!

요즘 지식재산인력양성팀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은 단연 지식

재산능력시험(이하 'IPAT')이다. IPAT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시행하는 국내 유일한 지식재산능력 검정시험이다.

이혜영 과장대리는 “다양한 지식재산 인재 발굴 및 역량 평가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지식재산 능력 검증체계인 IPAT을 2010년부터 개발·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영어에 대한 평가시험으로 토익을 선택 하듯이 최근 지식재산능력에 대한 평가시험으로 대학에서는 학점연계, 기업체나 지역지식재산센터(RIPC)에서 IP분야 직무교육 등으로 IPAT을 선택·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회 신입직원 채용 시 우대조건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IPAT은 연 2회 시행되고 있으며, 출제범위는 지식재산 기초, 창출, 활용, 보호에 대한 기본 및 실무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IP업계 종사자, 연구원, 발명가 등 IP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앞으로 하고자 하는 분, 아이디어를 권리화하고자 하는 분 등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올해 제7회 시험에서는 최우수 득점자 1명에게 상금 100만원, 차순위 득점자 1명에게 상금 50만원, 성적우수자 다수에게 상금 10만원 등을 시상할 예정이며, 성적우수자에 한해 취업준비 등에 활용 가능한 확인서 발급도 진행할 예정으로 시험의 활용·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대한민국 IP인재 교육을 위한 희망선언

지식재산인력양성팀은 대회 시상식이나 중요한 교육행사를 개최할 때마다 팀워크의 중요성을 실감한다. 특히 많은 인원이 한 팀을 이루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팀워크가 좋지 않으면, 프로젝트가 말 그대로 '산으로' 가는 경우가 발생한다. 때문에 백인홍 팀장은 팀원들 간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워크숍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점심을 함께 하면서 자유롭게 팀원들의



아이디어를 서로 나누는 런치 미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하죠. 개개인 모두 원하는 것이 다르므로 하나로 목표를 집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고비의 상황에서 극복해내려는 팀의 의지가 어느 팀보다도 강해야 합니다.”

백 팀장은 특히 “다양한 장점을 가진 남성과 여성이 조화를 이루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 면에서 우리팀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5:5로 추진력과 꼼꼼함을 고루 갖추었다고 할 수 있죠. 덕분에 행사를 맡았을 때는 신속하게 진행하고, 행정업무를 맡을 때는 외부인이 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문서작성능력이 탁월하죠. 또한 팀 내 분위기도 화기애애해서 다른 팀원들이 오고 싶어 하는 팀이기도 합니다.”

지식재산 강국 대한민국을 꿈꾸며 창의력 있는 우수 지식재산 인력확보에 여념이 없는 지식재산인력 양성팀. 이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발명특허

#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시장 개척 속도 낼 것”

+ (주)HK터빈



기업에게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핵심 키워드는 ‘원천기술’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천기술을 개발해야 시장을 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반작용식 스팀터빈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HK터빈’ 김정훈 대표의 기업전략과도 일치한다. 철저한 준비와 기술력, 열정을 기본 원칙으로 회사를 설립한 그는 ‘일등을 추월할 수 있는 원천기술과 핵심기술을 개발해야 일등기업이 될 수 있다’는 철학으로 회사를 이끌어 가고 있다.

### 기술자립을 위한 노력으로 일군 터전

HK터빈은 지난 2010년 4월 설립된 벤처기업이다. 역사가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탄탄한 기술력을 무기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김정훈 대표는 오직 HK터빈의 성공만을 바라보며 달려왔다. 밖에서 볼 때엔 멋지지만 한 이 길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기업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민과 역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리학자셨던 아버지께서 연구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지난 2009년에 특허를 출원하여 확보했습니다. HK터빈의 핵심기술인 ‘반작용식 터빈’ 기술이 바로 그것이지요. 저는 이 기술을 무조건 사업화해야겠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했어요. 때문에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사업화 결심부터 사업체를 만들고 성장시키기까지 제게 주어진 일에 진심을 다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터빈은 기계 분야에서 가장 많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다. 현재 대형 터빈의 경우 세계 메이저 기업에서만 설계 및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는 유일하게 두산중공업이 제조하고 있지만 설계기술은 외국 기업에서 수입하는 실정이다. 소형 터빈의 경우 터빈의 경제성 및 발전 효율성 등의 이유로 국내에는 제조업체가 전무하며, 해외 기업도 생산이 미비하다.

HK터빈의 타깃 시장은 소형(10KW~1MW) 터빈 시장이다. 현재 시장은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저온, 저압의 폐열 규모로 추산하면 시장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가능성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K터빈 제품인 ‘반작용식 터빈’은 기존 터빈과 원리나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 최초 원천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뉴턴의 제3법칙인 작용 반작용의 원리로 노즐 분사에 의한 스팀 반작용 힘에 로터가 회전





“20MW 이하 소형 터빈 시장 50% 점유율을 10년 내에 달성하고 터빈 신기술 개발에 앞장서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01

01. 100KW급 반작용식 스팀터빈(현재 전남 장흥 폐기물소각장에서 실증 테스트 중) 02. 2012년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수상한 WIPO 사무총장상 상패 03. 반작용식 터빈 원천 특허 및 관련 특허증 04. 반작용식 스팀터빈 3D 모델 형상 05. HK터빈은 포스코에너지와 함께 공동기술개발을 체결하고 반작용식 터빈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02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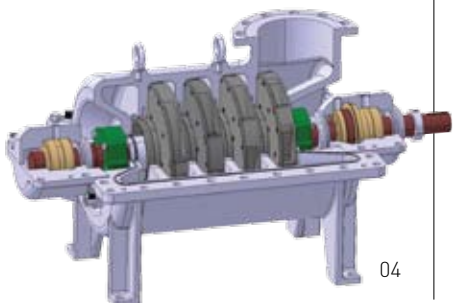
하죠. 또한 노즐에서 분사된 스팀은 다음 단의 로터로 연결되어 다단을 이용해 에너지 변환효율을 증가시킵니다. 반작용식 터빈은 구조가 간단하고 소재 선택의 폭이 넓어 기존 터빈보다 제작비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마모에 의한 손상이 없기 때문에 저온, 저압에서 포화증기를 이용한 발전도 가능합니다.”

**지원 아래 이룬 성과, 기업의 미래를 꽃피우다**

HK터빈은 3평짜리 작은 공간에서 시작했다. 가진 것이라고는 오로지 ‘기술’뿐이었던 김정훈 대표의 눈앞엔 언제나 넘기 힘든 산이 끊임없이 줄지어 서 있었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 돌파구가 된 것이 바로 한국발명진흥회의 지원이었다.

“반작용식 터빈은 기본 이론 및 개념만 잡혀 있는 상황이었기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최초 시제품이 필요했습니다. 사업 초기 시제품 제작비용이 없어 여러 기관을 찾아 문을 두드렸죠. 하지만 HK터빈은 매출과 규모 등 여러 면에서 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해 계속해서 좌절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곧 방법을 찾았습니다. 신문에 우연히 한국발명진흥회가 지원하는 ‘우수 발명시작품제작지원사업(현 특허기술의 초기 상용화 지원)’ 광고를 보게 된 것이죠. 정말 놀랍게도 한국발명진흥회는 우리의 기술만 보고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시작됐죠.”

HK터빈은 2010년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최초 특허 내용을 기반으로 시제품을 제작하여 반작용식 터빈의 원리 및 기본 이론을 증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특허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2010년에는 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 지원으로 특허 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해 투자 유치 및 자금을 확보했다. 이는 모두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의



04



지원 아래 이룬 성과였다.

“시제품 제작을 통해 타 기관 또는 기업과 공동 연구 및 투자 유치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기업 등에 소개는 물론, HK터빈을 알릴 수 있는 발표 자리도 많이 마련해 주었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현재 HK터빈이 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것입니다.”

HK터빈은 2012년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WIPO 사무총장상, 국제 발명 전시회 태국 국립과학 연구원상, 이란 금상을 수상했다. 또한 발명진흥회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산은캐피탈, 산업은행, 플래티넘 기술투자 등으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현재는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 에너지와 함께 반작용식 터빈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WIPO 사무총장상을 수상했을 때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노즐에서 뿜어져 버려지는 스팀을 재사용해 터빈이 한 번 더 돌아가게 하는 새로운 구조를 개발한 것이 인정받은 것이죠. 이 기술의 핵심은 잉여 에너지라고 생각했던 스팀을 한 번 더 사용한 것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둘러보면 버려지는 에너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처음의 마음가짐 그대로

김정훈 대표는 HK터빈이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길에 '각 부서 간

(기술부, 관리부, 마케팅부)의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를 위해 매주 1~2회 프리토킹 및 다과시간을 진행한다. 이 소통의 시간은 직원 간의 벽을 허물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업의 미래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저희는 저가·고효율(터빈효율 50% 이상) 반작용식 터빈을 적용한 폐열발전시스템 패키지 개발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기존 시장에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폐열발전 시스템 상용화를 통해 전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소형 터빈 시장에서 최고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20MW 이하 소형 터빈 시장 50% 점유율을 10년 내에 달성하고 터빈 신기술 개발에 앞장서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기술에 대한 시제품 제작 및 금융연계 지원을 통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HK터빈. 김정훈 대표는 마지막으로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지속적인 관심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며 이야기를 마쳤다. HK터빈의 미래가 특히 더 기대되는 것은 사업화 초기에 가졌던 '첫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만든 기술로 사람을 위한 기술을 창조해 나가는 기업. HK터빈의 내일은 세계의 중심에서 펼쳐질 것이다. 발명특허

Trend  
Report

# Analog

디지털 시대의 혁명을 이끈 MIT 미디어랩 설립자 니콜라스 네그로폰테(Nicholas Negroponte)는 “컴퓨터는 더 이상 계산기가 아니라 생활 그 자체”라고 말했다. 디지털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아날로그의 종말을 말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지나간 것들에 대한 감성의 표현, 낡고 오래되고 불편한 것을 떠올리게 하는 이 아날로그의 진정한 힘은 ‘낭만’이 아닌 ‘실용’이다. 그것이 오늘날 아날로그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다.



아날로그의  
진정한 힘은  
낭만이 아닌  
'실용'이다







### 삶의 방식을 변화시킨 디지털 세상



세상이 편리해졌다. 어떤 면에서는 지나칠 만큼 편리해졌다는 생각이 든다. 손 안의 작은 스마트폰 하나면 불편함을 느낄 수 없는 세상이 왔다. 전화번호를 기억할 필요도 없고 급히 메모지를 찾을 일도 없다. 생전 처음 가보는 길목 앞에서 커다란 지도를 펼칠 수고도, 약속장소에서 연락이 안 돼 엇갈릴 일도 없다. 생활의 편리함을 이끈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는 일면 긍정적으로 읽힌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함을 얻은 대신 본질을 잃은 현대인의 자화상을 볼 때면 아날로그 시대가 그리워지곤 한다.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는 따뜻한 감성이자 지나간 것에 대한 향수를 말한다. '낡고 오래되고 불편한 것'에서 찾을 수 있는 가치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는 고유한 문화적 기류를 형성하여 아날로그들의 가슴을 두드렸다. 하지만 요즘에는 감성과 향수를 넘어서서 아날로그만의 실용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많아졌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 본질을 지키고자 하는 이 시대의 아날로그



디지털 시대의 취약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보안'이 아닐까. 오늘날은 웹상에서 온갖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다. 그 안에는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도 있고 국가의 중대사가 걸린 정보도 있다. 보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악의적인 해킹을 통해 체계가 깨져버리는 일이 다반사다.

최근 러시아 연방경호국(FSO)은 재래식 타자기 20여 대 구입을 위한 예산을 책정했다. 도청 등으로 인한 정보유출을 우려해 오직 원본만이 존재하고 파기가 쉬운 종이문서를 이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것은 아날로그의 실용성과 보안력에 초점을 맞춘 대표적인 사례다.

이외에도 몇몇 가수들이 음반을 제작할 때 잘려 나가는 음 없이 온전한 음악을 담을 수 있는 LP판을 이용하거나, 만년필과 필름카메라, 바늘시계 등에 대한 수요 증가는 아날로그의 실용성을 추구하는 아날로그들의 귀환을 알린다.

### 다시 아날로그 세상으로, 온전한 '나'를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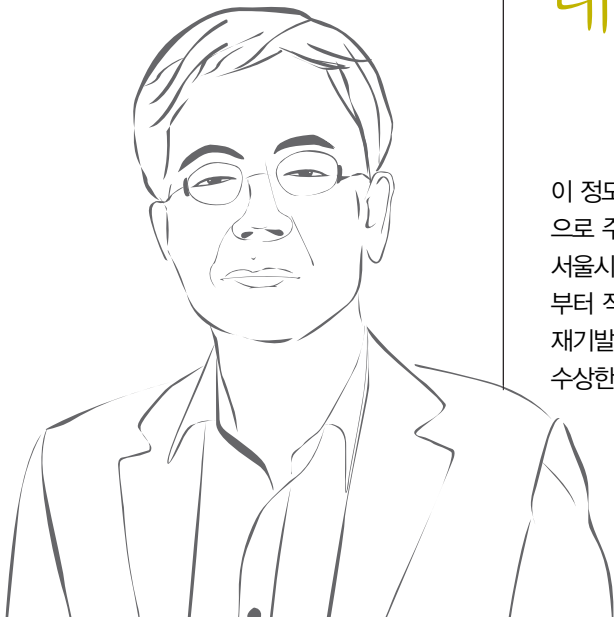


웹이라는 디지털 공간은 우리에게 신세계를 열어줬다. 시공간의 한계 없이 정보를 취하고 전 세계 누구든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웹은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한 대신 '진정한 인간관계'의 단절을 불러 사회적인 문제까지 야기했다. 이는 자연과 사람, 그리고 이 세상의 본질에 대한 사유가 부족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날로그들은 아날로그 세상으로의 회귀를 외친다. 아날로그는 뛰어난 실용성과 더불어 이 세상과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창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디지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스마트폰 대신 펜을 잡아보는 것이 어떨까. 아날로그가 가진 느낌의 미학과 본질의 탐구 속에서 진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발명특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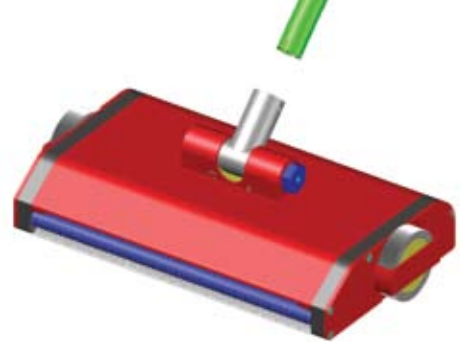


서울시민 발명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수상한  
이종훈 씨



## 발명, 그 소소함에 대하여

이 정도면 발명 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지난 30일 특허청과 서울시, IBK 기업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와 서울지식재산센터가 주관한 '국민행복기술 구현을 위한 서울시민 발명경진대회'에는 총 801건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거대한 발명품부터 작지만 소소한 생활 속 이야기까지, 이번 경진대회에 접수된 발명품들은 서울시민의 재기발랄한 생각 그 자체였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발명의 장(場), 그곳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종훈 씨를 직접 만났다.



| 무전원 자동청소기

### “피부리다 보니 발명품 만들었죠”

‘경험한 만큼 안다’는 옛 선조들의 조언은 진리에 가까운 명제가 아닐까 싶다. 경험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발명세계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지난 30일 진행된 <국민행복기술 구현을 위한 서울시민 발명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종훈 씨 역시 아내와 분담하며 가사(家事)를 하다가 번득, 하고 스치는 아이디어를 붙잡았다. 경험을 통해 무형의 발상을 유형의 물건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집에서 청소를 하면 아내는 진공청소기를 돌리고 저는 걸레질을 해요. 그런데 청소를 할 때마다 느꼈던 불편은 진공청소기 전원코드가 매우 거슬린다는 점이었어요. 길기도 길뿐 아니라 선이 계속 엉켜서 같은 자리를 뱅글뱅글 돌죠.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진공청소기를 쉽게 이용할 수 없을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나아가 먼지흡입과 걸레질을 한 번에 할 수는 없을까 생각하게 되었고, 그 계기로 이번 제품을 발명하게 됐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종훈 씨의 제품은 ‘무전원자동청소기’다. 이름 그대로 전원이 없는 자동청소기로, 청소기를 밀거나 당길 때 바닥과의 마찰력을 이용해 바퀴를 회전시키고 동시에 세 개의 롤러브러시를 회전시켜 먼지를 쓸어낸다. 자동으로 쓰레받기에 먼지를 포집할 수 있고 걸레질도 할 수 있어 많은 수고를 덜어준다.

“현재 시중에도 유사한 제품이 출시돼 있긴 하지만 다른 제품과 달리 제 발명품은 청소기를 밀거나 당기거나에 상관없이 세 개의 브러시가 먼지를 포집해요. 일반적으로 다른 청소기는 밀 때 청소가 되고 당길 때 브러시가 역회전을 하기 때문에 청소가 잘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개발한 무전원자동청소기는 걸레질까지 한 번에 청소가 이뤄지고 머리 카락도 자동으로 걸러주죠. 뿐만 아니라 청소기 자루의 손잡이에는 먼지 털이게가 내장돼 있어요. 이번 발명품은 진공청소기 흡입구로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제품과 차별점이 많습니다.”

### ‘고민’ 보다 ‘관심’ 먼저 기울이길

이종훈 씨는 현재 1인 기업으로 막 창업에 발을 디딘 CEO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는 약 13년 전부터 물건들을 자신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이리저리 만지작거렸다. 어느 날은 취향에 맞게 컴퓨터를 오밀조밀 조립하다가 길을 찾아주는 ‘미니 컴퓨터’를 만들고 말았다(?). 결국 이 기계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이었던 셈이다. 그의 첫 발명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약 13년 전부터 취미로 하던 일이 발명의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어요. 당시 자동차 오디오를 들어내고 오디오 사이드만한 컴퓨터를 조립해 내비게이션 기능과 음·영화를 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죠. 또한 웹 카메라를 설치해 자동차 블랙박스로 사용했어요. 이때 발명이라는 게 정말 재미있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들 수 있으니까요.

“  
발명은 결코 거창하지 않아요.  
생활에서 필요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주변의 것으로부터  
찾아나가는 게 중요하죠.  
오히려 소소한 것에  
답이 있다고나 할까요 ”

그 즐거움이 오늘까지 이르러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는 발명과 관련한 자신의 강점으로 ‘설계능력’을 언급했다. “전기공학을 전공한 덕분에 제 생각을 도면으로 표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게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아요. 반면 전공이 아닌 기계분야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이 없지만 개념과 구조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이디어를 구체화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죠.”

그는 발명품 하나가 만들어질 때마다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가족들을 보며 많은 힘을 얻는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발명이 아빠를 자랑스러워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일을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 싶죠. 앞으로도 꾸준히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일정 계획을 갖고 발명을 진행해 온 게 아니듯 앞으로도 아마 그러겠죠. 평소 하던 대로, 주변의 상황에 관심을 갖고 그저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입니다. 떠오르는 발상을 놓치지 않고 우직하게 공부하고 구체화하면서 발명을 이어갈 거예요.”

그는 발명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고민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했다. 무엇을 발명할지 고민만 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주변 사물에 관심을 갖다보면 어느 순간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게 그가 제공하는 ‘발명 팁(tip)’이었다.

“아이디어 구체화 고민은 그 후에 해도 늦지 않아요. 생활에서 필요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주변의 것으로부터 찾아나가는 게 중요하죠. 발명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소한 것에 답이 있다고나 할까요.”

‘발명은 발견’이라는 말이 있듯 주위 사물을 세세하게 ‘잘 보는’ 것이 발명의 진짜 첫걸음일 것이다. ‘좋은 눈’을 가진 자가 좋은 발명을 이루듯, 이종훈 씨 역시 현명한 눈을 가진 사람 중 한 명이었다. 발명특어

한 때는 서울시 3대 시장으로 이름을 떨쳤던 황학동 중앙시장, 그리고 그 지하에 위치한 지하 상가는 원래 예술과는 아무런 접점이 없는 공간이었다. 특히 지하상가에 있던 대부분의 회센터와 이불가게는 마치 유령의 집처럼 주인 없이 버려져 있었다. 그러던 지난 2009년 10월, 지하상가 입구에 '신당창작아케이드'라는 간판이 걸렸다. '헿' 하고 찬바람이 불던 빈 공간이 재미있는 벽화와 아기자기한 간판,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 등 수많은 볼거리들로 가득해졌다. 입김이 피어오르는 겨울날, 시장과 예술 공방의 따뜻한 공존이 펼쳐지는 곳, 신당창작아케이드로 길을 떠났다.



# 예술이 삶의 심포가 되는 황학동 사람들 이야기

## 신당창작아케이드

### 서울의 숨은 예술 공간

황학시장 구석에 있는 지하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요지경 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서울문화재단의 프로젝트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 신당창작아케이드로, 다양한 상점들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예술 공방과 뒤섞여 있다.

입구부터 총천연색의 무늬가 수 놓아진 벽면과 귀여운 캐릭터들이 그려진 기둥들은 색다른 즐거움을 안겨준다. 매뉴판부터 벽화, 간판까지 바다를 콘셉트로 꾸며진 횃집들과 감쪽한 모습으로 방문객들을 안내하는 각종 표지판들, 사진과 그림, 조각 공예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된 공방들이 보는 사람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든다.

구석구석에는 예술가들의 숨은 배려도 존재한다. 용도 모를 의자와 '아트마켓 도시락(樂)'이 바로 그것이다. 기둥 사이 사이에 위치해 있는 의자들은 전시된 작품을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한 예술가들의 작은 배려다. 또 작품들을 감상하며 신당창작아케이드의 긴 지하통로를 걷다 보면 '도시락(樂)'이 나타난다. 여기는 입주 작가와 신당창작아케이드를 방문하는 시민이 전시된 예술작품을 감상하며 잠시 지친 몸을 쉴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다.



01. 신당창작아케이드는 공예와 생활 디자인을 중심 테마로 오픈 스튜디오와 체험 공방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예술인과 상인, 시민의 소통 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02. 중앙시장 상인들의 얼굴을 바탕으로 상가 간판을 만드는 '얼굴 걸고 판다' 프로그램은 인터넷을 통해 참여 예술가들을 공모해, 약 100여 명의 재능기부로 진행됐다.



03. 신당창작아케이드 한켠에 마련된 작은 도서관. 04. 투명 유리로 만들어진 예술가들의 작업실은 방문객들이 창작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게 한다.

### 편견은 접어두고, 감성에 충실하라

‘지하세계를 둘러보는 일은 즐겁다. 저마다의 개성에 맞춰 꾸며놓은 40여 곳의 공방들은 전면이 투명 유리로 돼 있어 지나가는 이들이 전시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아울러 종이와 도자기, 금속, 사진, 목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작업하는 모습도 슬며시 들여다볼 수 있다.

이곳의 예술가들은 시장이라는 입지와 열린 공방이라는 특성을 살려,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상인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도 한층 가까워졌다. 특히 토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5시까지 열리는 ‘체험 공방 나도 예술가’ 프로그램은 매주 예약이 꽉 찰 정도로 인기가 많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무료체험 공방 프로그램 ‘나도 예술가’, 지역학교 방문체험 프로그램 ‘배달공방’, 지역연계 교육프로젝트 ‘화요예술클럽’, 지역연계 교육프로젝트 ‘프로젝트 I(아이)-소리 얼굴’, 지역연계 교육프로젝트 ‘프로젝트 살림’이 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로는 ‘복도 꾸미기’, ‘흥+정 가게’ 프로젝트, ‘골목, 누비’ 프로젝트, 아트마켓 도서(樂)락이 있다. 시제품을 상설 전시하는 ‘신당생활사박물관’도 있다.

### 재래시장 희망 찾는 예술활동

신당창작아케이드에 입주한 예술가들은 황학시장 상인들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행사들도 진행하고 있다. 작년에는 지하 회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신당창작아케이드가 횡집상가 20곳과 공동으로 점심메뉴 개발 및 저렴한 가격의 메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름하야 ‘날로 먹는 Day’. 예술가들은 매출 부진으로 고민하던 회센터 20여 곳에 5천 원짜리 회덮밥 메뉴를 개발해 주고 멋진 홍보물도 제작해 직접 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기도 했다.

또 시장 상인들의 오래된 장신구를 리폼하여 상인이 원하는 대상에게 특별한 사연과 함께 전달하는 ‘황학동 사람들 이야기’를 진행하는가 하면, 중앙시장 상인들의 얼굴을 바탕으로 상가 간판을 만드는 ‘얼굴 걸고 판다’ 프로그램은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및 일반인 100여 명의 재능기부로 진행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상인 100명의 이야기를 대형 캘리그래피 작품으로 전시하는 지역 축제 '황학동별곡, 100인의 이야기'를 서울중앙시장에서 열었다. '100인의 이야기'에는 좁은 가판대를 사이좋게 나눠 쓰는 대머리 아저씨와 할머니 사연, 젓갈부터 호떡까지 '팔 수 있는 모든 상품'을 판매하는 왕만두 가게 등 사람 냄새 나는 글들이 올랐다. 상인들은 수십 년간 장사 외에 다른 취미가 없었던 터라 처음에는 시큰둥했다. 하지만 곧 재미를 붙였고 프로젝트 진행을 돕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부수입도 올렸다. 상인과 예술가들이 서로 협업하여 시너지효과를 내니 이거야말로 '상생(相生)'이 아닐까.

**복작복작 사람냄새 나는 진짜배기 삶**

신당창작아케이드는 올해부터 생산자협동조합 시스템을 아심차게 도입했다. 이에 따라 예술가뿐만 아니라 예술작품을 기획하고 유통시킬 기획자, 판매자들을 위한 공간도 주어지고 있다. 과연 어떤 열매를 맺을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4기 입주예술가들이 이제 막 자리를 잡고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성숙한 발전을 통해 유희공간 활용의 모범적인 사례로 정착하고 있는 신당창작아케이드. 사실 지난 4년 여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예술가들이 상인들에게 다가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노력도 완성을 위한 과정인 만큼 신당창작아케이드는 예술가와 시민, 지역사회가 함께 성공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여전히 고군분투 중이다. 발명특허

**신당창작아케이드 가는 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2번 출구로 나와 반대 방향으로 걷다 보면 중앙시장 입구가 보인다. 입구 정면에서 보이는 신당지하상가 13번 출입구로 내려오면 된다. 체험 공방 신청은 신당창작아케이드 홈페이지(<http://cafe.naver.com/sdarcade>)를 통해 가능하며 당일 신청은 해당 체험 30분 전부터 운영 사무실에서 받는다.

※ 문의 02-2232-8833



06. 반면 전통시장 프로젝트들과는 달리 신당창작아케이드는 시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공공미술이나 이벤트 개최에 그치지 않고, 예술가들이 직접 시장 속으로 들어가 소통하는 창작 인큐베이팅 프로젝트다. 07. 신당창작아케이드는 시민들의 생활에 가까운 공예와 생활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최초의 도심 속 창작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 IP + NEWS

## 특허청, 창조경제타운의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나선다

● 지난 9월 30일, 특허청은 창조경제타운\*과 연계하여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화 시켜주는 '지식재산 기반 국민행복기술구현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창조경제타운은 문을 연지 2주 만에 국민들로부터 1,200여 건이 넘는 아이디어 제안이 쇄도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은 창조경제타운에 모아진 생활밀착형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와 기술의 혁신성, 기술 경쟁력, 시장 트렌드 적합성 등을 평가하는 2차 전문가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별로 특허분석 전문가, 트리즈(TRIZ) 전문가, 기술사업화 전문가 등으로 전문컨설팅팀을 구성하여 약 한 달간 사업화 및 지식재산권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켜주게 된다.

또한, 기술 확장성이 우수한 중대형 아이디어에 대하여는 위탁제조기업을 연결시켜 다양한 제품 군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별도 프로세스도 마련했다. 특허청은 제품화를 담당하게 될 위탁제조기업에 약 3개월간 ▲사업환경 및 지식재산권 동향 진단·분석 ▲해당 분야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설계 ▲핵심·원천특허 획득을 위한 R&D 방향 설정 등 맞춤형 특허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아이디어의 안정적인 사업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과정을 통해 탈바꿈된 실속형 아이디어들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하는 아이디어 사업화 멘토링 서비스와 연계시켜 창업까지 지원된다.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되면 시제품 제작은 물론 전문 큐레이터가 배정되어 사업자 등록, 마케팅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구체화 되지 않은 미성숙된 아이디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는 데에 있다. 이는 세상의 변혁을 이끈 창조적인 제품의 대부분이 처음에는 구체적이지 않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착안되었다.

스마트폰 시대를 연 아이폰의 혁신적인 유저인터페이스, 멀티터치(Multi-Touch)도 '키보드 없이 손가락만으로 간편하게 입력할 수는 없을까'라는 스티브 잡스의 관념적 상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의 '창조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 아이디어 접수가 가능하며, 관련 문의를 특허청(042-481-5931)이나 한국 지식재산전략원(02-3287-4221)으로 하면 된다.

특허청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과장은 "창조경제타운은 국민의 창의적 상상력을 자원으로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체적 플랫폼이다. 국민행복기술구현 사업과 연계시켜 창의적 상상력을 가진 누구라도 창조경제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올 하반기 25개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다양한 경제 주체가 자유롭게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발전시켜 사업화를 실현하는 창조경제 포털 사이트(www.creativekorea.or.kr)





**특허청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구노트 확산에  
팔 걷고 나섰다!**



**창업, 지식재산권으로 통하다**

특허청, 만화와 문답식 형태로  
읽기 쉬운 창업자 맞춤형 지재권  
가이드북 발간



● 특허청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 주관하는 「2013 연구노트 확산 세미나」가 지난 11월 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연구노트 확산 세미나」는 대학, 기업, 공공(연) 등 연구개발 현장에서 연구노트의 활용·촉진 및 연구자들의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2011년부터 개최되어 이번이 4회째를 맞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특허청뿐만 아니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연구노트 확산에 더욱 속도가 붙게 됐다. 이번 세미나는 대학, 기업, 공공(연) 등 150여명의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 기반의 연구개발 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노트의 기록·관리·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노트에 관한 제도 연구 및 활용사례에 대한 발표로 진행됐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조병휘 지식재산경영실장은 “연구노트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허 침해를 당해보니 지식재산을 보호함에 있어 연구노트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다른 기관들도 이번 연구노트 확산 세미나를 통해 연구노트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특허청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연구노트 확산을 독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연구노트 관리 우수기관 및 우수 연구자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연구노트 관리 우수기관에는 카이스트(KAIST)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선정되었고, 우수 연구자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일호 수석연구원이 선정되어 수상했다.

연구노트는 국가 R&D의 소중한 기록물로서, 지식재산 창출의 기초자료인 동시에 진정한 발명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 2007년부터 연구노트 제도화 및 보급, 교육, 홍보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발명진흥법에 연구노트 활용 촉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연구노트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 특허청은 창조경제의 주역인 예비창업자들이 지식재산권에 기반한 창업 준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창업자 맞춤형 지재권 가이드북을 발간한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북은 주요 분쟁사례와 지재권을 통한 창업 성공사례를 만화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구성해 예비창업자들이 창업가이드북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한편, 창업 현장에서 적용하기 쉽도록 창업자를 위한 8가지 조건, 기술창업에 필요한 단계별 체크포인트, 외식업·판매업·서비스업 등 주요 업종별로 주로 문의되는 지재권 관련사항을 점검하기 쉽도록 구성하였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관련 체크사항도 포함했다.

제작과정에는 현장에서 활동 중인 지역지식재산센터 특허컨설턴트, 창업진흥원·창업보육협회 창업전문가, 신문기자까지 적극 참여해 자문 및 감수를 하여 창업자의 이해도 제고에 심혈을 기울였다.

제작된 가이드북은 창업진흥원, 지역지식재산센터, 창조경제타운 웹사이트(<http://www.creativekorea.or.kr>)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제공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창업자의 아이디어가 지재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을 통해 출원 서류 작성 지원에서부터 특허전략 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인기 방송 프로그램 상표출원 급증



### 안방출원시대를 연 특허행정정보화 14년, 그간의 성과는?



- 많은 사람들부터 사랑받고 있는 인기 방송프로그램의 상표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기존 방송 3사의 대표적인 연예프로그램인 <1박2일>, <무한도전>, <런닝맨(Running Man)> 등에 대한 상표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종합편성의 인기 있는 프로그램인 <시월드>, <꽃보다 할배> 등에 대한 상표출원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KBS, MBC, SBS 등 방송 3사의 대표적인 인기 프로그램의 2007년 이후 상표출원을 보면 <1박2일> 96건, <무한도전> 41건, <진짜사나이> 11건, <런닝맨(Running Man)> 12건, <힐링캠프(Healing Camp)> 14건, <해를 품은 달(해품달)> 34건 등 총 208건의 상표출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 자연인(개인)의 출원은 137건(66%)으로 법인의 출원 71건(34%)에 비하여 자연인(개인)의 출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종합편성(JTBC, 채널A, TV조선 등)의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상표출원도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데 2012년 이후 출원을 보면 <시월드> 8건, <꽃보다 할배> 9건 등 총 17건의 출원이 있었고, 그 중 자연인(개인)의 출원은 8건(47%), 법인의 출원은 9건(53%)으로 법인의 출원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전체출원인 중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송국 등에서 출원한 것은 총 47건으로 전체출원 225건 중 21%로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TV프로그램의 경우 방송국 등 직접 제작한 자가 이를 특허청에 등록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실무적으로 정당한 권리자에 한하여 등록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당한 권리자 이외의 자가 출원한 것이 방송프로그램과 협찬 또는 후원하는 것으로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원은 모두 거절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국생산성본부의 성과측정 결과 특허청은 세계 최초로 안방출원 시대를 연 '특허넷 시스템 (특허 출원부터 등록, 증명서 신청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해주는 시스템)'을 통해 1999년부터 2012년까지 14년간 연평균 4,887억 원, 총 6조 8,421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넷 시스템을 통한 출원, 등록 등 특허행정 서비스 분야에서는 1조 4,603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으로 출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특허청까지 이동하는 교통비, 이동시간 등을 아낄 수 있게 되어 발생하는 기회비용 절감과 출원 접수업무가 자동화되어 서면출원에 비해 낮은 전자출원 수수료가 적용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특허청은 공공 및 민간부문 R&D 수행 시 중복연구개발을 방지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전 세계의 특허기술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제공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특허기술 정보 검색을 위한 교통비, 이동에 따른 기회비용 등이 절감되어 4조 5,122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마지막으로 특허청 내부 업무처리 분야에서는 특허검색, 통지서 작성, 자료보관, 공보발간 등 모든 특허행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었고, 8,696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와 같은 성과는 특허청 정보화 예산 대비 약 11배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특허넷 시스템 개선을 통해 편리한 특허출원과 신속한 특허심사를 지원하여 지식재산 강국을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3.0, 고객과 함께하는 한·중·일 특허협력



### 세계로 가는 특허 길이 넓어진다



● 특허청은 지난 11월 14일,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된 제3차 한·중·일 특허청장회담에서 3국간 지식재산 협력관련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웹사이트인 트리포넷(TRIPO : Trilateral IP Offices)을 공동 구축하여 이날부터 민간에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3국 특허청은 매년 증가하는 특허출원건수와 그로 인한 업무량 증가 등의 이슈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2001년부터 특허, 디자인, 정보기술, 인재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해왔다.

이번 공개되는 홈페이지는 한·중·일 3국간에 진행된 지식재산 분야의 각종 협력활동을 소개하고 분야별 협력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그동안은 3국 심사관들만 이용 가능했던 것이었다. 3국 공동 홈페이지가 대민 개방됨으로써 지재권 분야에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들이 민간에 제공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한·중·일 특허청의 신규성·진보성 여부 판단에 대한 비교 연구보고서, 각국의 법령 비교대조표, 각국의 특허심사지침서, 지식재산법 및 특허정보 검색서비스의 링크모음 등이 포함된다.

이번에 한·중·일 특허청 공동홈페이지가 구축되어 민간에 공개됨으로써 우리 기업 및 국민의 중국, 일본의 지식재산 정보에 대한 접근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3국 공동홈페이지의 대민공개는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기치로 하는 새정부의 정부3.0 정책의 하나로, 우리 특허청과 중국 및 일본 특허청이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이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한·중·일 3국 특허청이 접수하는 특허 출원건수는 전 세계 출원건수의 41%, 디자인 출원건수는 전 세계 출원건수의 78%에 이르는 등 지재권 분야에서 한·중·일 3국의 협력의 중요성과 파급효과가 매우 큰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에 구축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한·중·일 3국 협력사업 결과물 및 중국과 일본의 지재권 정보들은 현지에 진출할 예정인 우리 기업 및 국민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권리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허청은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러시아, 영국,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 포르투갈, 핀란드, 노르딕 연합 특허청과 '글로벌 특허심사 하이웨이' 프로그램의 시행 추진에 합의했다. '특허심사 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이하 'PPH')란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2개국 이상에 출원한 경우, 먼저 심사하여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한 국가의 심사 서류를 나중에 심사가 진행될 다른 국가의 특허청에 제출하면 그 사실을 참고하여 해당 출원을 일반 출원보다 빨리 심사를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 양자 간 PPH 프로그램 하에서는 PPH 신청을 위한 요건이나 증빙서류 등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어 여러 나라에서 PPH를 이용하고자 하는 출원인에게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13개국 특허청이 합의한 '글로벌 PPH' 프로그램은 다자간 PPH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양자간 PPH 프로그램 이용요건을 표준화, 간소화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에서 PPH를 이용하여 보다 쉽고 빠르게 특허권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1월 6일부터 동 프로그램이 시행될 경우, 출원인이 우리나라에서 ①특허결정을 받거나 ②PCT 국제단계에서 긍정적 심사결과를 받았을 경우, 글로벌 PPH 프로그램 참여국 특허청에서 우선 심사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기존에 양자간 PPH 및 PCT-PPH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미국, 일본 외 호주, 캐나다, 러시아, 영국 등의 국가에서도 '글로벌 PPH'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내년 1월부터 총 20개국과 PPH 및 PCT-PPH를 시행하게 되어, 우리 국민과 기업이 출원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PPH 제도를 이용하여 특허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 KIPA + NEWS

## “젊은 창의력이 세상을 바꾼다”

2013년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회 시상식 개최



## 2013년도 직무발명 포럼 개최



● ‘2013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대회’ 시상식이 지난 11월 25일 서울 조선포털에서 수상자와 후원기업 대표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개최됐다.

특허청과 한국공학한림원이 공동주최하고 우리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총 41개 기업과 연구기관이 문제 출제에 참여했으며, 전국 104개 대학 4639명의 대학(원)생이 약 8개월에 걸쳐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특허전략 수립 부문에서는 ‘열 유도 상 전이법(TIPS)에 의한 PVDF 중공사막 제조 방법’을 다룬 경기대 이지연·강지민·박미소학생 팀이, 선행기술 조사부문에는 ‘MgB2 초전도선을 이용한 MRI 마그네트 제작기술’을 다룬 경기대 이종현 학생이 각각 최고상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지식재산교육의 실용적 접근을 위해 산업계가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 특허분석을 통한 창의적 답을 제시하여 그 아이디어를 겨루는 대회로, 대회의 수상자들은 참여기업의 연구소 및 특허팀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검증된 인재로 평가받아 해당 기업에 취업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수상자들을 위한 우수 수상자 해외연수 및 수상자대상 윈터스쿨, CEO초청강연, YIPL 세미나, 리더십/지식재산 강좌, 그리고 산업체 방문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대회 수상자들이 차세대 지식재산리더(Young Intellectual Property Leaders(YIPL))로 활약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다.

● 우리회는 특허청과 함께 지난 11월 12일, 국내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13년 직무발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로 선정된 10개 기업에 대한 시상과 우수사례 발표, 발명진흥법 개정 사항 소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직무발명과 관련된 주요이슈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특허청은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최우수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에 삼성전자(주), 우수상(특허청장상)에 (주)케이씨텍, (주)에스에프에이 등 총 10개 기업을 선정했다.

이중 삼성전자(주), (주)에스에프에이, 우진일렉트로나이트(주)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표로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직무발명과 관련한 최근 이슈로서 다양한 비금전적 보상 사례, 대학 교수 발명의 직무발명성 문제 등을 논의했다.

또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개정 발명진흥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여 기업과 종업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했다.

###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 수상 기업]

- 최우수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 삼성전자(주)
- 우수상(특허청장상) : (주)케이씨텍, (주)에스에프에이, 우진일렉트로나이트(주)
- 장려상(한국발명진흥회장상) : 톱크웨어(주), (주)골프존, (주)인프라웨어, (주)광림, (주)원스텍넷, (주)플레이오토

## 상표제도 글로벌화 논의의 장, 선진 5개국 상표연례회의(TM5) 개최

- 우리회는 특허청과 함께 지난 12월 5일부터 6일까지 상표분야의 선진 5개국 회의체인 'TM5 연례회의'를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했다.

TM5 연례회의는 전 세계 상표·디자인출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선진 5개국 특허청이 출원인 편의제고와 상표·디자인제도의 국제적인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회의다. 2001년 미국, 유럽, 일본 3개국회의(TM3)로 시작해 2011년 한국, 2012년 중국이 참여해 5개국회의(TM5)로 발전했다.

이번 회의에는 TM5의 상표분야 고위급 인사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관계자 및 유저그룹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5개국의 상표 및 상품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TM-View 및 TM-Class 사업, 5개국 공통인정 상품목록구축사업, 악의적 모방출원 방지방안 등 기존의 9개 협력사업들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특허청은 TM5 연례회의가 개최되는 12월 첫째 주를 「한국상표·디자인주간」(12.2~6)으로 지정하고 각국의 상표·디자인전문가들을 초청해 상표·디자인에 대한 최근 국제적인 동향 및 이슈를 토론하는 국제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우리기업들에게 창조적 기업활동에 있어서 상표·디자인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먼저, 12월 3일에는 한국상표디자인협회(KOTA)와 국제상표협회(INTA)가 공동으로 '창조경제에서 브랜드와 디자인의 가치'라는 주제로 「서울 국제 상표·디자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WIPO의 David Muls(Senior Director), 유럽상표디자인청(OHIM)의 João NEGRÃO(Director)가 강연했다.

12월 4일에는 WIPO와 공동으로 한국의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 도입 10주년 기념과 2014년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제도 도입을 축하하는 「KIPO-WIPO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특허청 · WIPO · KAIST와 함께 '제4회 한-WIPO 블랜디드 국제교육 과정' 개최

● 우리회는 지난 11월 6일부터 3일간 19층 국제회의실에서 특허청, WIPO 및 KAIST와 공동으로 '제4회 한-WIPO 블랜디드 국제교육 과정'을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번 국제 교육과정에는 매튜 레이니(Matthew Rainey) WIPO 혁신국(Innovation Division) 국장,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의 클린턴 프란시스(Clinton W. Francis) 교수 등 해외지식재산교육 전문가를 비롯한 국내 전문교수, 기업인력 등 7명이 강사로 참석해 '글로벌 비즈니스 경영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관리 전략'을 주제로 IP라이선싱과 기술거래의 중요성 및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 특히 IP파노라마 콘텐츠 온라인 선행학습 및 에세이 작성을 통해 선발된 12개국 24명의 수강생들은 온·오프라인 교육환경을 융합적으로 활용하는 블랜디드 교육의 효율성에 대해 입을 모아 칭찬했다.

우리회 조은영 부회장은 "대한민국이 반세기 만에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인적자원의 힘이며 창조인재 양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한-WIPO 블랜디드 국제교육 과정을 통해 한국의 지식재산 국제교육 인지도를 높이고, 수강생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도국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해외연수 '지식재산 실크로드 북유럽' 운영

● 우리회는 자체 교육사업인 Ip Campu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지식재산 실크로드 이스라엘' 이어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7박 9일간 '지식재산 실크로드 북유럽' 해외연수 과정을 운영했다. 이는 특허와 창업에 강한 기업방문을 통해 국제적 감각을 습득함으로써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기업, 학계, 연구기관 및 북유럽 현지기관 전문가 등 약 20명이 참가한 이번 연수에서는 옅살라이노베이션센터(UIC), PRV(스웨덴 특허청), Startup Sauna(창업보육기관) 등 특허와 창업에 강한 기관 7곳의 현장방문을 비롯해 스웨덴, 핀란드 현지 IP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지식재산 포럼(2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우리회 조은영 부회장은 "융합과 상생, 창의적 인재가 핵심인 창조경제시대에 창조산업국가인 '북유럽(스웨덴, 핀란드)'의 특허기술 환경과 창업정신에 대한 현장 학습 및 국제교류를 위해 본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국제적 감각을 습득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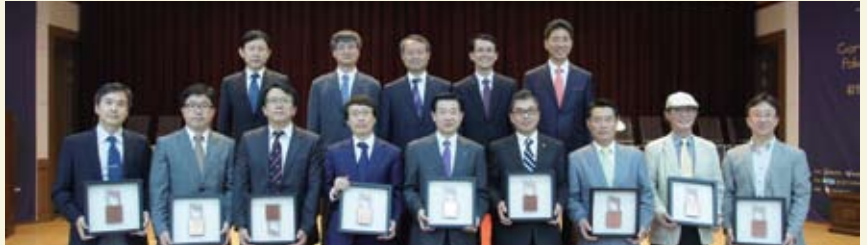
## 강원지회, '2013 강원 10대 특허' 개최

- '2013 강원 10대 특허 시상식'이 지난 10월 8일 강원지방중소기업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시상식은 우리회, 특허청, 강원테크노파크가 주최하고 춘천지식재산센터가 주관하며, 강원지역 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기술보증기금 춘천기술평가센터가 후원했다.

2013 강원 10대 특허 시상식은 지난해 강원지역에 등록된 1,258건의 특허를 대상으로 권리성, 기술성, 활용성 및 사업실용화 실적 등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10개의 특허를 선발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10대 특허에는 총2,35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되며, 강원테크노파크, 춘천지식재산센터, 강원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기술보증기금 춘천기술평가센터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우리회 조은영 부회장은 "이번 강원 10대 특허 선정을 계기로 지역 내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과 붐을 불러 일으켜 앞으로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며 "개발된 신기술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일상 속 상상력, 발명으로 연결

### 2013 대학창의발명대회 시상식 개최

- 지난 11월 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13 대학창의발명대회' 수상작품에 대한 전시회 및 시상식이 열렸다. 이 대회는 지식재산에 강한 창의력 있는 발명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생의 발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우리회가 주관한 '2013 대학창의발명대회'에 전국 94개 대학에서 3,442건의 발명이 출품되어 경합을 벌인 끝에 올해 최고의 대학생 발명으로 유진희, 김지원(이화여자대학교), 윤영미(한양대학교) 씨가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최고의 발명으로 선정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점자 키보드 앱'은 25만명에 이르는 시각장애인에게 손쉽게 한 손으로 문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기존에 고가의 입력장치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실용성은 물론 창의성과 완성도의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별상인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사무총장상에는 자전거의 앞바퀴에 가방을 넣을 수 있도록 한 발명으로 홍익대학교의 박준홍 씨가 수상했다. 세계적으로 자전거 붐이 일고 있어 자전거생산 기업과 상품화를 논의 중이며 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최우수상)에는 '비상구 방화문개폐장치'를 발명한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김성배, 김남훈 씨와 '착용 가능한 관절이 있는 목발'을 발명한 한양대학교의 김현일, 김현아 씨가 수상했다.

한편, 본 대회의 대상 수상작은 2012년, 2013년 제네바 국제발명품전시회에 출품해 2년 연속 금상을 수상했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창의성과 발명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올해 대상 수상작도 내년 국제발명대회에 출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 청소년 아이디어로 80건 특허출원

### 2013 YIP 최종결과 발표회 개최



## 김종호 경희대 교수 초청 '정부 3.0의 이해와 가치공유' 특강 개최

- 우리회는 특허청과 함께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YIP)' 교육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학생들에 대한 시상식 및 최종결과 발표회를 지난 11월 2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했다.

2013 YIP 최종 선발팀은 총 80팀 240명이며, 그중에서도 전자파 차단을 위해 분리와 회전이 가능한 원형의 전자레인지(경안고 '구두의 자부심'팀), 세대간 소통을 위한 지능형 인간관계 파악 어플리케이션(구암중 '제공'팀), 테두리를 양파 껍질처럼 떼어낼 수 있는 파스미래산업과학고 'A-TEAM'팀) 등이 청소년 특유의 기발하고 특독 튀는 아이디어로 눈길을 끌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YIP는 창의적인 발명인재 육성을 위해 기업이 제시한 과제에 대해 청소년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개선하는 교육과정을 거쳐 산업재산권으로 출원하는 기업 연계 발명교육 프로그램이다.

우리회는 지난 5월부터 아이디어 모집을 시작해, 선발된 80팀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했으며, 참여기업의 현장교육과 변리기관의 도움을 받아 청소년들의 아이디어가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으로 창출되도록 했다.

올해는 △금호전기 △복십자 △동부대우전자 △르노삼성자동차 △모닝글로리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위니아만도 △KT 등 실생활과 밀접한 9개 기업이 참여했다.

지난 11월 26일 결과발표회에서는 교육과정을 통해 최종 개선된 우수 아이디어의 전시와 발표회를 갖고, 참가팀원 수료식 및 우수 팀·지도교사 시상, 유명 강사의 창의성 특강이 진행됐다.

우리회 조은영 부회장은 "발명에 대한 열정과 창의성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며 "기업 연계 발명교육인 YIP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창조경제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우리회는 지난 10월 7일, 19층 국제회의실에서 김종호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를 초청해 임직원 대상으로 '정부3.0의 이해와 가치공유'라는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이는 새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3.0' 가치에 대한 이해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김 교수는 "기존 정부 운영 방식이 정부중심 일방행정부1.0) 또는 국민 중심 양방향정부2.0) 서비스였다면, 정부3.0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부처 간 협력함으로써 국민 개인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했다.

조은영 부회장은 "공공기관 차원의 정부 3.0을 이끌어갈 추진동력을 발굴하고 개방·공유·소통·협력의 3.0가치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제5회 중소기업 IP경영인 대회 개최

- 특허청이 주최하고 우리회와 대구지식재산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5회 중소기업 IP경영인 대회'가 지난 11월 21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됐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에서는 IP경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기업체 시상과 지식재산경영 우수사례 발표가 있었다.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스타기업과 일반기업 부문으로, 각 부문 대상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이 수여되는 등 총 16개 기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스타기업 부문 영예의 대상은 전북 군산 소재의 (주)운화가 차지했다. 식물줄기세포 분리 및 배양 전문업체인 (주)운화는 2010년에 특허청의 IP스타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된 후 홍콩의 위나라이트 그룹과 5천억원 규모의 원료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IP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 일반기업 부문 대상은 병원과 약국 관련 자동화시스템 생산업체인 대구광역시 소재 (주)제이비엠이 차지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지식재산 재능나눔 성과보고회를 함께 개최해 재능나눔 기부자 및 수혜자와 함께 지식재산 재능나눔의 성과도 공유했다.



## KIPA 사회봉사단, '김장담그기·연탄배달' 따뜻한 나눔 실천

- 우리회 'KIPA 사회봉사단'은 지난 11월 13일,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천사의 집을 방문해 사랑의 김장담그기 봉사활동으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또한, 11월 19일에는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가구를 집집마다 방문해 쌀과 연탄을 기부하고, 직접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KIPA 사회봉사단장으로서 행사에 직접 참석한 조은영 부회장은 "쌀쌀한 날씨에도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국발명진흥회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이웃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주변 소외 이웃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2007년 4월에 발족한 'KIPA 사회봉사단'은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비전을 품고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2013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우수상표권 + 수상자명단

● 발명특허대전 수상자 명단

구분	상격	수상자		발명(고안)의 명칭	권리 번호
		성명	소속(업체명)		
1	대통령상		(주)진시스템	종합효소 연쇄반응 장치	10-1253455
2	국무총리상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태양전지 소자 및 그 제조방법	10-1295199
3	국무총리상	김범수	플랫폼베이스	전자식 잠금장치용 키실린더	10-1237738
4	WIPO사무총장상	황재일	제일테크	약병용 날짜표시 뚜껑	10-1148656
5	WIPO사무총장상	홍기근	향존	주사바늘분리처리기	10-1249725
6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김병철	성공이야기	테이블 냉각장치	10-0579316
7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광주광역시 남구청	차량용 제설장치	10-1259592
8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주식회사티피티	침수 시 누전방지장치	10-1197414
9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농촌진흥청	왕겨 및 쌀겨를 함유한 생분해성, 광분해성 바이오필름 및 이의 제조방법	10-1062012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엔티씨 주식회사	용해 장치	10-1227382
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선박파공부위음극봉쇄장치	10-1204489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주)건지	고상식 축사	10-0786770
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송건희		도어록 장치	10-1293221
1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김이남	투캡	볼트 및 너트 이중 보호 캡	10-1254138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흥인화학(주)	고순도 염화수소 제조방법 및 제조 시스템	10-1203490
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주중합건축사사무소기림건축	개구부 주변의 균열방지용 응력분산공면판	10-1022708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주)테스토닉	먼지흡입장치	10-1255054
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김은수	에코큐어	휴대용 마스크 장치	10-1195175
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박일민	바루	풍압에 의한 유리 파손 방지 장치	10-1278292
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우순조		귀환적 키 입력 장치 및 그 방법	10-1046914
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이양우	동양사	자동김밥말이장치	10-1255922
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전봉삼	팜스포	무선 줄넘기 세트	10-1132699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박정원		다용도 창호	10-1181958
24	특허청장상	이창희	에코런	듀얼 타입 냉매 회수 시스템 및 이에 이용되는 듀얼 타입 냉매 회수 장치	10-1248343
25	특허청장상		한국중부발전(주)	컨베이어 내마모 롤러 장치	10-1221433
26	특허청장상		케이알에코스타 주식회사	엘이디 발광소자 블록형 조립식 모듈	20-0463959
27	특허청장상		(주)둘레	비대칭 구조의 도르래를 이용한 신발끈 고리	20-0456572
28	특허청장상		유한회사 셋토퍼	TV용 셋톱박스 전원 자동제어장치 및 그 방법	10-1086734
29	특허청장상	성인환	한국인삼열매(주)	팽화 및 발효 처리된 인삼열매와 인삼화병 추출물의제조방법	10-0852139
30	특허청장상	박경범		보조바퀴를 갖는 자전거	10-1256318
31	특허청장상		(주)대경산업	배뇨 분석 리더기	10-1202648
32	특허청장상	이원계		연동하우스 제설장치	10-1259343
33	특허청장상	이경원		기타	30-0678616
34	특허청장상	김오중		플러그 인출이 용이한 콘센트	10-1039101
35	특허청장상		주식회사 포스코	전기 자동차용 언더 바디	10-1220768
36	특허청장상		주식회사 제이엔와이씨	타이머식 가스 차단 장치	10-1216400

37	특허청장상	서동욱		차량의 안전장치	10-1125830
38	특허청장상	임동규		회전형 타격 연습기	20-0451111
39	특허청장상		한국농림시스템(주)	조류퇴치용 절연전선시트	10-1041578
40	특허청장상		(주)오버텍	허리의 원 궤도 운동이 가능한 전신운동기	10-1282300
41	특허청장상		비큐리오 주식회사	법선 분할법을 이용하는 최단 경로 선택 방법 및 장치	10-0990446
42	특허청장상	남중송	남은기업(주)	파이프 연결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파이프 구조물	10-1198225
43	특허청장상	박대표	주식회사 셀워시	발세척기가 부착된 다용도 세면대	10-0573286
44	특허청장상	황병덕		전기자전거	10-1188689
45	특허청장상	최계환		손목 및 팔목 보호기능을 갖는 각도조절형 마우스받침대	10-1300210
46	특허청장상	장홍선	제주소랑	유체-냉각 장치를 이용한 엘이디 집어등 장치	10-1247455
47	특허청장상		(주)한선	커피 로스터 및 그 운용방법	10-1130547
48	한국발명진흥회장상	유병남		기포 발생 기능을 구비한 인테리어 장식 장치	10-2013-0044904
49	한국발명진흥회장상	전태숙	주식회사 태성	낙시바늘 자동 결속장치	10-2012-0119342
50	한국발명진흥회장상	안재원		액정보호필름 및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한 액정 보호필름 부착 방법	10-2012-0146181
51	한국발명진흥회장상		엘케이메디칼(주)	일회용 주사기	10-1228585
52	한국발명진흥회장상	김진홍	(주)바이오메딕스	프로폴리스용 수목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피부질환치료 및 개선용 조성물	10-1029534
53	한국발명진흥회장상	김종이	주식회사 엔티마	수중익형 수륙양용자전거	10-1005680
54	한국발명진흥회장상		(주)지앤지테크놀로지	지하수 삼정의 상층 오염지하수 유입방지를 위한 지표하부보호벽 그라우팅 펌프장치 및 그라우팅방법	10-0845973
55	한국발명진흥회장상	성도민고		일체형 열교환기의 단열 패널	10-1195282
56	한국발명진흥회장상	이성근	(주)경양모터	이중 공극형 발전기	10-1238855
57	한국발명진흥회장상	양성목	토리텍	컴퓨터 작업자용 손목 받침대	30-0672620
58	전국경제인연합회장상	박진한	유에이디	기브스환자용신발	30-0627568
59	전국경제인연합회장상		(주)해피라이프	목마사지장치	10-0913359
60	전국경제인연합회장상	이준우	홀로트랜드	버블유형체가 구비된 장식 조명기구	10-1265024
61	전국경제인연합회장상	박유범		이스트제조장치	10-2012-0147150
62	전국경제인연합회장상		해양경찰청	인명구조용 배낭	10-2013-0078851
63	전국경제인연합회장상		주식회사 휴트리	이물질 유입 방지기능과 악취차단기능을 구비한 스틸 그레이팅 및 그 제조방법	10-1264097
64	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	오종경	케어시스템	이종액체 혼합기	10-1114944
65	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		(주)동방데이터테크놀로지	LED별 휘도 보정이 가능한 스마트 전광판 제어 시스템 및 방법	10-1295342
66	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	안기풍	코리아햅픽스	경보수단을 구비한 방법창	10-1220812
67	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	정대호	이터널브릿지 주식회사	차량용 스마트키 커스텀 시스템 및 그 설정 방법	10-1206976
68	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		한국전력공사	케이블의 고장점 탐지 장치 및 방법	10-1029292
69	한국무역협회장상		(주)젠크스앤키엘	마우스 피스를 구비하는 호흡기	10-1176942
70	한국무역협회장상	황정철		애플리케이션의 상태 조건의 조합을 이용한 상황 조건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구동 방법	10-1271769
71	한국무역협회장상		(주)칠철공사	침투수 유도관을 이용한 우수 배수구 주변 방수시공방법 및 우수 배관 주변 방수 시공용 침투수 유도관	10-1219076
72	한국무역협회장상	이하용	(주)마이다스커뮤니케이션	가스 및 전기 검출 레인지	10-1241105
73	한국무역협회장상		한국도로공사	주행차량의 교통정보산출장치 및 그 산출방법	10-0917051
74	중소기업중앙회장상	윤인학		생태 건축 구조물과 그의 단열 구조체 및 상기 단열 구조체의 시공방법	10-1277358
75	중소기업중앙회장상	백남현	퍼즐리아	구슬 퍼즐	10-2012-0108936
76	중소기업중앙회장상	이승준	에스아이켄	원터치 오프너를 갖는 제품을 개구하는 안전오프너 및 이의 이용방법	10-1299672
77	중소기업중앙회장상	임진광		휴대용 3중 용기	10-1244567

78	중소기업중앙회장상	이지아		도자기 재질로 이루어진 개인용 디켄터	10-0965134
79	중소기업중앙회장상	강민수	조이풀사이언스	모듈 형 회로소자의 구성 키트	10-1210304
80	대한변리사회회장상	권성수	(주)대경	물 절약 변기	10-1075142
81	대한변리사회회장상	임충홍		롤 테이프 자동절단기	10-1192847
82	대한변리사회회장상	김승남	꼬마건축가	조립식 집짓기 완구	10-0853574
83	대한변리사회회장상	김단우	포스포르	타이 펜던트	10-1124980
84	대한변리사회회장상	박정열	제네시스	구이대 승강구조를 갖는 난로 겸용 직화 구이기	10-2013-0069762
85	대한변리사회회장상		(주)큐알온텍	디엠피 수신 장치의 데이터 입력 장치 및 방법	10-0841224
86	한국특허정보원장상	김인겸	엔젤종합의료기	거동불편자의 목욕과 이동을 돕기 위한 목욕의자	10-1067983
87	한국특허정보원장상		(주)캐노픽스	차량시스템용 차량브라켓	10-2013-0043535
88	한국특허정보원장상		(주)한길산업	폴리우레탄 콘크리트를 이용한 가로수 보호판	10-1235625
89	한국특허정보원장상	이영상	꿈과사랑 수아성	농약 방무 마스크	10-1273224
90	한국특허정보원장상		주식회사 퓨어시스	정화 살균 모듈 및 이를 구비한 공기정화 살균기	10-1069685
91	한국여성발명협회장상	김상원	디자인블레스	책상	30-2012-0051198
92	한국여성발명협회장상	이영철		악력안력기	10-1292937
93	한국여성발명협회장상		바이오닉스메디칼(주)	질 세정기	10-2012-0153814
94	한국여성발명협회장상	배규호		조절고리를 갖는 이어폰	10-1184533
95	한국여성발명협회장상	이정원		운송수단용 보조시트	10-2012-0140008
96	한국여성발명협회장상		고패스 주식회사	공기순환기능을 가지는 신발	10-1164463

● 우수상표권 공모전 수상자명단

구분	상표명	구분	권리자	권리 구분	상명	상격
1	venygood	개인	조순형	상표	금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2	TheZZOK	개인	장수주	상표	특별상	WPO사무총장상
3	큐티플	법인	(주)넥스트원	상표	은상	특허청장상
4	잘크톤JALKTON	법인	조아제약 주식회사	상표	은상	특허청장상
5	밀아리	법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표	은상	특허청장상
6	Qric(큐릭)	법인	(주)경문엔터테인먼트	상표	은상	특허청장상
7	nuga?com	개인	성준형	서비스표	은상	특허청장상
8	자연家	개인	임용재	상표	동상	한국발명진흥회회장상
9	doble	법인	진한공업(주)	상표	동상	한국발명진흥회회장상
10	Goodpl	법인	(주)굿플	상표	동상	한국발명진흥회회장상
11	알알이씩	개인	이정미	상표	동상	한국발명진흥회회장상
12	PAYTHINK	법인	(주)에스티씨그룹	상표	동상	한국발명진흥회회장상
13	로토	개인	이호철	상표	동상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상
14	퓨어시스PURESYS	법인	주식회사 퓨어시스	상표	동상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상
15	WHEELBACK	법인	(주)휠백코리아	상표	동상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상
16	mini O	법인	(주)포스뱅크	상표	동상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상
17	NOBLROSE	법인	(주)아마로스	상표	동상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상
18	Aquarinette (아쿠아리넷)	개인	백광훈	상표	동상	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
19	비법버물라	개인	김준경	서비스표	동상	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
20	LABOGENE	법인	(주)비엠에스	상표	동상	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
21	라플	개인	배선혜	상표	동상	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

22	sohna	법인	(주)한선	상표	동상	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
23	CANOFIX	개인	안기풍	상표	동상	한국무역협회회장상
24	lona	법인	(주)엠이씨	상표	동상	한국무역협회회장상
25	SAKUN	개인	강연석	상표	동상	한국무역협회회장상
26	누리나비	법인	외바다다주식회사	상표	동상	한국무역협회회장상
27	코아피	개인	손기홍	상표	동상	한국무역협회회장상
28	DUCAN	개인	이정엽	상표	동상	중소기업중앙회장상
29	엘라벨(르), Ellabelle	법인	(주)로다멘코스메디	상표	동상	중소기업중앙회장상
30	지플렉스(zflex)	개인	조호준	상표	동상	중소기업중앙회장상
31	팜듀	법인	(주)참선진녹즙	상표	동상	중소기업중앙회장상
32	OKVENTURE	법인	한국창업경영인총원	서비스표	동상	중소기업중앙회장상
33	오토세이버	개인	조부연	상표	동상	대한변리사회회장상
34	srider(에스라이더)	법인	주식회사 네임플러스	상표	동상	대한변리사회회장상
35	상상ON	법인	주식회사 공공엔상상	상표	동상	대한변리사회회장상
36	에코스톤(ECO STONE)	개인	이희연	상표	동상	대한변리사회회장상
37	hermesys	법인	(주)헤르메시스	상표	동상	대한변리사회회장상
38	RG	법인	(주)아리바이오	상표	동상	한국특허정보원장상
39	엄마택시	개인	강해성	상표/서비스표	동상	한국특허정보원장상
40	K	개인	김용성	상표	동상	한국특허정보원장상
41	Gosotal,Dr.Smell	개인	윤육연	상표	동상	한국특허정보원장상
42	OPSEN	법인	옵토파워(주)	상표	동상	한국특허정보원장상
43	ECOTABLE	개인	박장호	서비스표	동상	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상
44	균형코리아	개인	이정필	상표	동상	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상
45	B.Garim	법인	(주)캐노픽스	서비스표	동상	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상
46	HEATLIKE	법인	정화실업(주)	상표	동상	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상
47	I&Feel	개인	김대상	상표	동상	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상

venygood	TheZZOK	큐티플	잘크톤JALKTON	밀아리	Qric(큐릭)	nuga?.com
						
기능성 배게	염색(쪽빛)	식물성장장치	어린이 음료	인형 등 판촉물	약세사리	검색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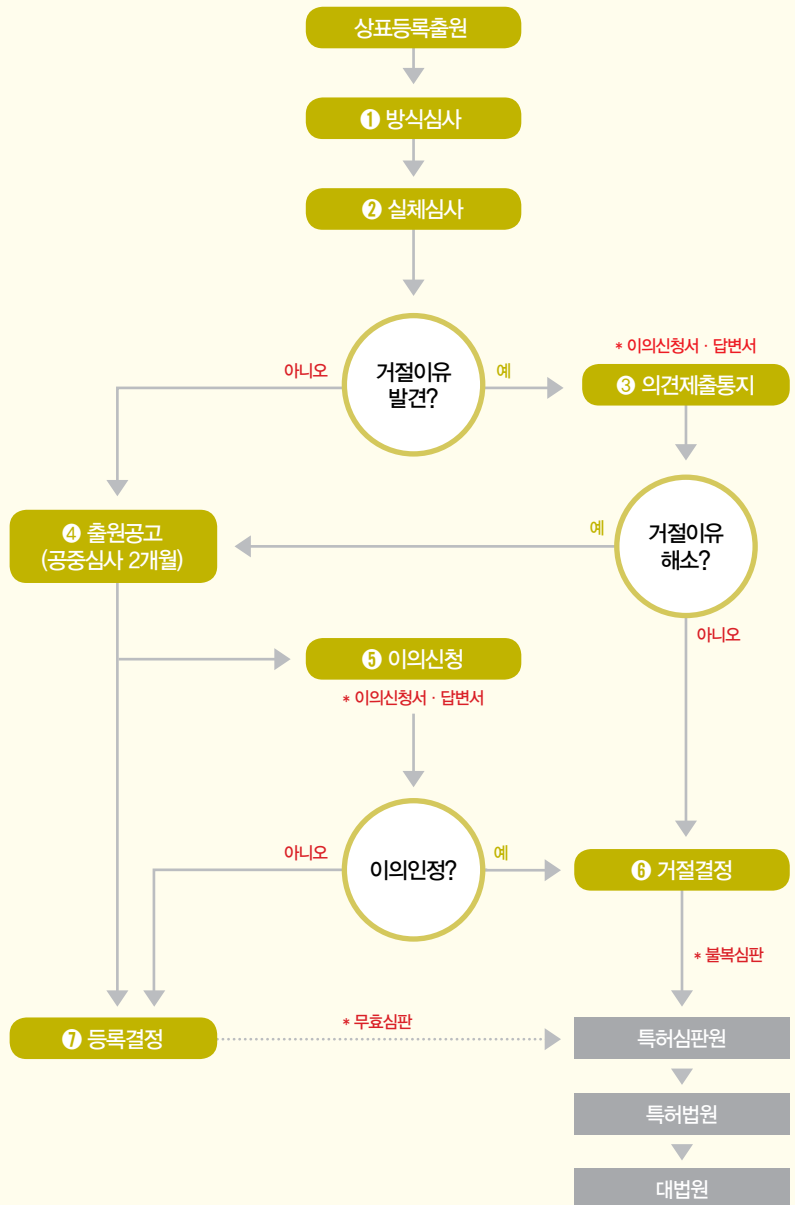
# 심사 알아보기 Ⅲ

## 상표 심사 절차 및 맞춤형 심사 제도 운영



Q. 흐름도

'상표'는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및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말합니다. 상표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됩니다. 상표, 서비스표, 업무표장,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바로 그것인데요. 비슷비슷하지만 그 정의는 각기 다르니 출원할 때 유의하여야 합니다.



**Q.** 상표출원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표법상 특유의 제도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① **입체상표제도**

· 3차원적인 입체상표(예 : 코카콜라 병 모양)를 평면으로 구성된 상표와 마찬가지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② **다류 1출원제도**

·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이 1가지 류 이상일 경우에도 1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 1출원서로 여러 류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출원절차가 단순해집니다.

③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제도**

·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업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Q.** '맞춤형 심사제도'란 무엇인가요?

**A.** '빠른 심사, 일반 심사, 늦은 심사'의 세 가지 심사 중 하나를 자신의 특허전략에 따라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빠른 심사는 기존 우선심사 및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고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에 통지토록 요청하면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선심사 대상의 확대를 말합니다.

늦은 심사는 늦은 심사를 바라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허출원인이 원하는 유예시점에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늦게 심사받는 대신 희망시점에 맞춰 심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심사는 심사 청구 후 평균 16.8개월(2011년 하반기 기준)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공받는 심사를 말합니다.



**Q.** '우선심사제도'란 무엇이며,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우선심사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출원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KIPA QUIZ

## Readers Comments



### 2013년 11+12월호 퀴즈

- Q.** 어떤 회사가 새로운 기술을 실제로 상용화하기 위해 헤치고 나아가야 하는 거미줄처럼 두렵고 중복되게 짜인 지식재산권의 집합을 지칭하는 말로, 다수 혁신적인 기업의 진로를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 Q.**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2개국 이상에 출원한 경우, 먼저 심사하여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한 국가의 심사 서류를 나중에 심사가 진행될 다른 국가의 특허청에 제출하면 그 사실을 참고하여 해당 출원을 일반 출원보다 빨리 심사해주는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 2013년 09+10월호 퀴즈 정답

01. 지식재산능력시험(IPAT)
02. 디자인 무심사제도

### 2013년 09+10월호 퀴즈 당첨자

- 이용운 dyddy\*\*\*\*@hanmail.net (인천광역시 남동구)  
강미야 kmy\*\*\*\*@nate.com (경기도 시흥시)  
하경주 full\*\*\*\*@naver.com (경상남도 양산시)

#### 이춘성 독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에서 우연히 보게 된 <발명특허>. 그저 기발한 것쯤으로 알고 있던 '발명'과 '특허'가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인 단계로 진행된다는 점과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즉 단순한 발명품 소개나 특허 안내가 아닌 지식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준 것이죠. 특히 '한·중·일 협력시대 지식재산권이 핵심이다'란 기사를 통해 우리 곁에 발명과 특허가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식재산권의 기초이고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핵심성장 엔진이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위엔 아직도 발명과 특허를 특정사람들의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저부터 다시 한 번 생각의 전환을 가져보려 합니다.

#### 김양희 독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번호에서는 개정되는 디자인보호법에 대한 내용과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에 대한 기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사를 통해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의 핵심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법 개정이 현실을 잘 반영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다양한 IP 지원 사업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 기사를 통해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IP 지원 사업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재산 전문정보지 [발명특허]를 읽고 퀴즈의 정답과 독자의견을 smp@kipa.org로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일 1월 13일)





# 원고 투고 및 광고 게재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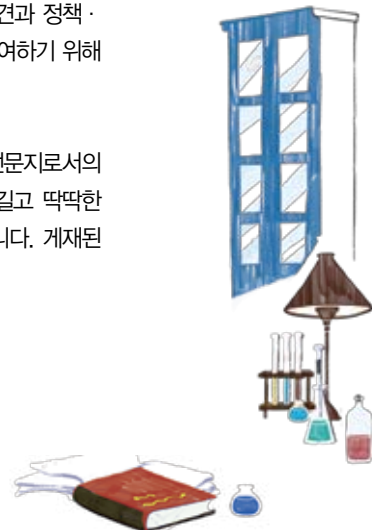
한국발명진흥회가 발간하는 「발명특허」는 발명진흥사업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동향 및 정보를 다루는 전문정보지로 본회 회원사 및 국내외 유관기관, 기업, 도서관, 학교, 발명가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원고 투고 및 귀사의 홍보를 위한 광고 게재를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원고 모집 안내

2013년도부터 새롭게 개편된 「발명특허」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야별 전문 의견과 정책·출원 동향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널리 확산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간되는 지식재산 전문정보지입니다.

콘텐츠 중 [IP Focus]에서는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정보를 선도하고 정책·기술 전문지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투고를 받고자 합니다. 단, 길고 딱딱한 글이 아닌 신문의 칼럼 형식으로 누구나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는 원고를 부탁드립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모집 분야 : 지식재산권 관련 칼럼
- 원고 주제 : 관련 분야별로 자유롭게 선택
- 원고 분량 : 원고지 22매~24매(A4용지 10Point, 3매 이내)
- 모집 시기 : 상시 모집
- 보내실 곳(E-mail) : smp@kipa.org



## ● 광고 및 원고 모집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기획팀(Tel. 02-3459-2727, Fax. 02-3459-2729)

광고가격(호 기준)

광고게재면	규격	가격	비고
표지 3	칼라전면	700,000	부가세 별도
내지 화보		500,000	

## ● 한국발명진흥회 지회 안내

지회	지회장	사무국장	주소	연락처
부산지회	박성용	김유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601	051-645-9683
광주지회	고정주	김 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1-1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062-954-3841
강원지회	김윤호	김현웅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1076 아이씨티빌딩 201호	033-264-6580
전북지부	-	정승원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515-1	063-471-1284



# 지식재산 취업포털

[www.ipin.or.kr](http://www.ipin.or.kr)



지식재산 취업포털

지식재산분야 취업을 위한 정보, 인맥, 기회를 한번에!

## 지식재산 인재의 경쟁력이 미래를 좌우한다!



### ipin

- 지식재산 분야 취업정보
- 지식재산 구직을 희망하는 인재정보
- 지식재산 관련 교육/행사정보
- SNS를 통한 지식재산 정보공유

ipin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제공하는  
SNS기반의 종합취업포털 서비스입니다.

[www.ipin.or.kr](http://www.ipin.or.kr)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 「2014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후원기관 모집

‘2014년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후원기관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2013년 11월 4일 특허청장,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 ● 대회 개요

### • 목적

- 특허에 강한 엔지니어 양성 및 대학(원)의 참신한 아이디어 산업계 공급

### • 주요내용

- 운영방식 : 후원기관이 문제출제 및 심사를 담당하고, 대학(원)생이 지도교수와 함께 참가하여 특허전략이나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제시
- 경진부문 : 특허전략 수립부문, 선행기술 조사부문

### • 참여주체 역할

- 후원기관 : 문제출제와 심사, 수상자 상금 지원 및 수상자 취업 인센티브 제공 등
- 대학 : 대학(원)생 참여유도 및 지도, 대학의 실용적 특허교육 확산
- 특허청 · 한국공학한림원 · 한국발명진흥회 : 대회 운영 관리 및 지원

## ● 기관 참여내용

### • 대회 상금지원

- 특허전략 수립부문 : 1,000만원
- \* 우수상 1팀(600만원), 장려상 2팀(각 200만원)

### • 선행기술 조사부문 : 200만원

- \* 우수상 1명(100만원), 장려상 2명(각 50만원)

## ● 문제출제 및 심사

- 문제는 후원기관별로 선행기술 조사부문과 특허전략 수립 부문으로 나누어 출제
- 심사는 1차 서면심사, 2차 발표심사, 3차 최종심사로 구성 · 진행
- 참여기관은 서면심사 및 발표심사에 참가(심사위원 1~2명 필요)

## ● 후원기관 선정방법 및 절차

- 후원약정서를 바탕으로 선정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선정
- 이전 3개년 간 대회 후원기관, 수상자 취업 우대기관, 대학(원)생 논문(답안)의 지식재산경영 적극적 활용 의사 표명 기업 등에 대하여는 선정 시 우대

## ● 신청 및 문의내용

- 신청기간 : 2013. 11. 4(월)~2014. 1. 17(금)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팀  
(Tel.02-3459-2833/5)
- 신청서 : 첨부된 후원약정서에 따라 작성한 후 우편 또는 e-mail(cpu@kipa.org) 접수

※ 대회 운영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patent-universiade.or.kr) 공지사항 참조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캠퍼스

## 2013년 교육일정표

IP CAMPUS

(단위: 원)

지식재산 일반교육				
번호	일자	과정명	환급/지원	수강료(회원사)
<b>지식재산 일반교육</b>				
1	01.23~01.25	지식재산권 기초 1기	노동부 환급 약 15%환급	각 과정당 55만(48만)
2	01.30~02.01	특허정보검색 및 특허성 판단 1기		
3	02.20~02.22	강한 디자인 창출 및 저작권 1기		
4	02.25~02.27	강한 상표를 위한 브랜딩 전략 1기		
5	03.06~03.08	지식재산권 기초 2기		
6	03.13~03.15	특허명세서 작성 및 리뷰 SKILL UP 1기		
7	03.20~03.22	특허청구범위해석과 침해판단 1기		
8	03.27~03.29	특허평가 및 라이선싱 계약 1기	노동부 환급 약 15%환급 / 중소·중견기업 대상 특허청 80% 지원	
9	04.03~04.05	지식재산 분쟁대응 및 협상 1기		
10	04.10~04.12	미국특허마스터(출원~소송) 1기		
11	05.08~05.10	강한 디자인 창출 및 저작권 2기		
12	05.22~05.24	강한 상표를 위한 브랜딩 전략 2기		
13	05.29~05.31	지식재산권 기초 3기		
14	06.03~06.05	특허청구범위해석과 침해판단 2기	노동부 환급	
15	06.12~06.14	TLO를 위한 연구성과 관리		
16	06.19~06.21	특허평가 및 라이선싱 계약 2기	노동부 환급 약 15%환급 / 중소·중견기업 대상 특허청 80% 지원	
17	08.21~08.23	지식재산권 기초 4기		
18	08.28~08.30	특허정보검색 및 특허성 판단 2기		
19	09.04~09.06	중국특허마스터 (출원~소송)		
20	09.11~09.13	강한 디자인·상표 실무		
21	09.25~09.27	특허명세서 작성 및 리뷰 SKILL UP 2기		
22	10.08~10.11	특허청구범위해석과 침해판단 3기 (※10.09 한글날 휴무)		
23	10.14~10.16	특허평가 및 라이선싱 계약 3기		
24	10.16~10.17	특허경영 우수기업 IP전략		
25	10.23~10.25	지식재산 분쟁대응 및 협상 2기		
26	10.30~11.01	미국특허마스터 (출원~소송) 2기		
27	11.06~11.08	유럽특허마스터 (출원~소송)		
28	11.13~11.15	주요국(IP5) 지식재산권 비교 실무		
29	11.20~11.22	지식재산권 기초 5기		
소계		29회		



한국지식재산센터



제1교육장



제2교육장



교육생 휴게실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캠퍼스

## 2013년 교육일정표

(단위: 원)

지식재산 특별교육				
번호	일자	과정명	환급/지원	수강료(회원사)
1	02.15	연구원들을 위한 발명신고서 작성 1기	-	각 과정당 18만(15만)
2	03.12	단계별 특허비용 및 기일관리 전략 1기		
3	04.16	특허 주요심사기준(화학생명)	중소·중견기업 대상 특허청 교육비 80% 지원	
4	04.23	특허 주요심사기준(전기전자)		
5	05.02	무효심판 대응전략		
6	05.14	영문 지재권 용어 및 영문레터 작성 노하우 1기	-	
7	06.11	특허소송시 변론능력 SKILL UP <small>*변리사 의무연수 6시간 인정</small>		
8	07.01	특허침해 감정서 작성 및 손해액 산정	-	
9	09.02	변호사를 위한 상표소송 실무 <small>*변호사 의무연수 6시간 인정</small>		
10	09.24	직무발명 보상액 산정 및 공동연구개발 계약	중소·중견기업 대상 특허청 교육비 80% 지원	
11	10.01	영문 지재권 용어 및 영문레터 작성 노하우 2기		
12	10.22	연구원들을 위한 발명신고서 작성 2기		
13	11.05	단계별 특허비용 및 기일관리 전략 2기		
14	11.28~29	특허소송 실무 및 최신 판례 동향 <small>*변리사 의무연수 12시간 인정</small>		
소계		14회		-

(단위: 원)

지식재산 국제교육			
번호	일자	과정명	수강료
1	04.20~04.26 (5박 7일)	지식재산 실크로드_이스라엘(해외연수)	440만
2	10.12~10.20 (7박 9일)	지식재산 실크로드_북유럽(해외연수)	690만
소계		2회	-
합계		47회	

- 상기 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http://www.ipcampus.net>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노동부(고용보험 가입대상자): 교육비의 약 15% 환급 / 특허청(상호출자제한기업 외 대상): 교육비의 80% 환급
- 환급 중복 지원 불가, 특허청 지원 대상자 회원사 할인 제외

### 기업 맞춤형 방문 위탁교육



과정문의 및 연락처

www.ipcampus.net Tel: 02-3459-2762,2767,2781,2782 Fax:02-3459-2789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 2014년도 대학(원) 지식재산 강좌지원 신청 공고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지식재산에 강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2014년 대학(원) 지식재산 강좌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4년 대학(원) 지식재산 강좌지원 신청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대학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개요

- **목적**: 대학 및 대학원에 지식재산 강좌개설을 지원하여 대학(원)생의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실무능력 향상 도모
- **지원 학기**: 2014년 1학기 및 2학기
- **지원 대상**: 전국 대학교
- **운영 형태**: 학점이 인정되는 정규과목
- **지원제외 대상**
  - 특허청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 특허청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운영지원사업' 주관대학
  - 교육부 지정 '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 ● 지원내용

① 지식재산 전문강사의 오프라인 강의지원

구분	오프라인 강의지원			
	지식재산 입문	지식재산 기초	지식재산 심화	전공과목 내 지식 재산 교육
	5주 지원	5주~16주 지원	16주 지원	2주 또는 4주 지원
학 부	○	○	×	○
광주지회	×	○	○	○

\* 위 표에서 ○로 표기된 유형을 선택하여 『지식재산 강좌지원 신청서』작성

② 온라인강의 지원

-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www.ipacademy.net](http://www.ipacademy.net))의 지식재산(IP) 이러닝 제공
- 지식재산능력시험(PAT : Intellectual Property Ability Test)을 대비한 온라인 강의 제공

## ● 오프라인 강의지원 세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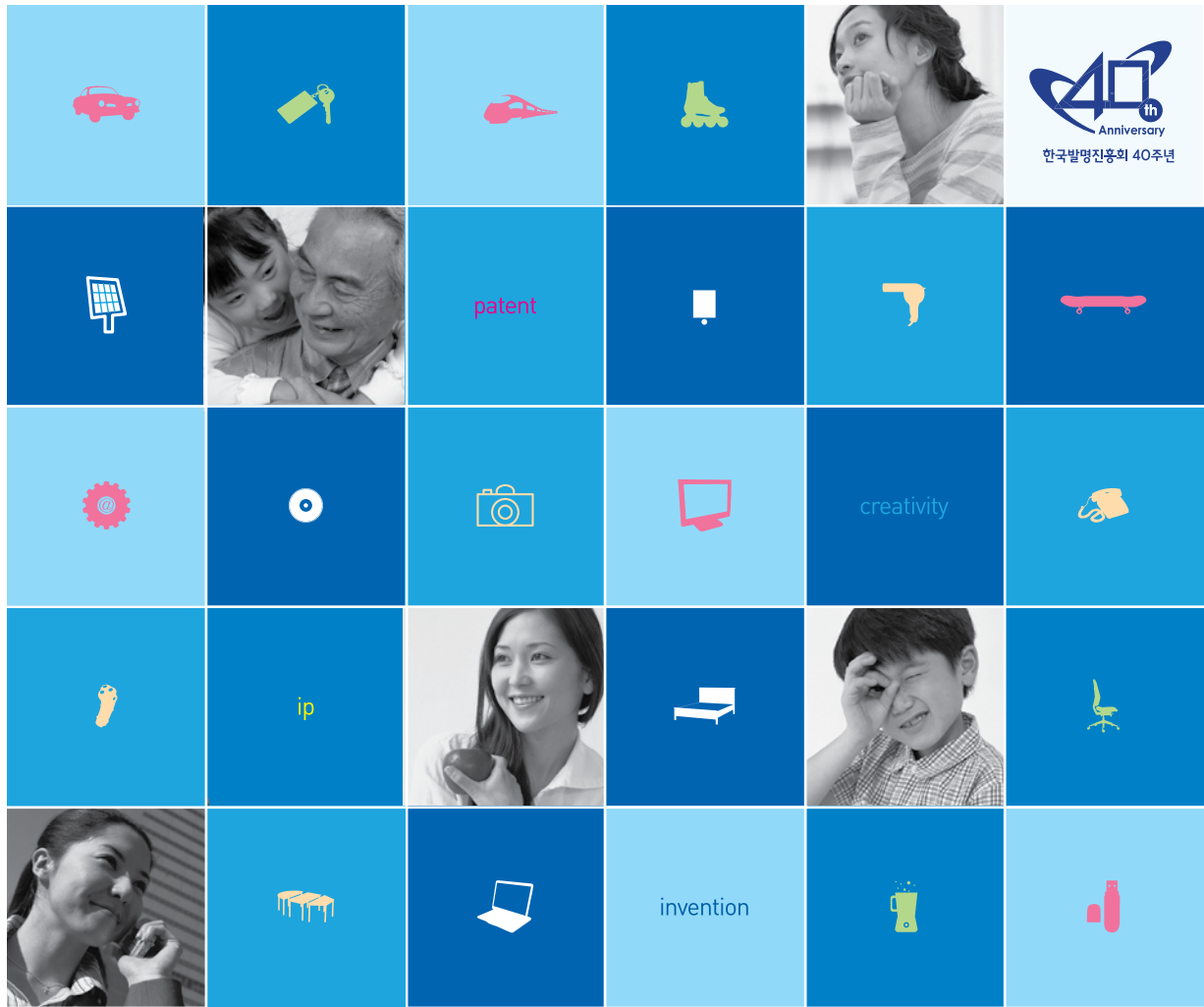
- **지식재산 입문·기초·심화**: 수강생의 전공 및 수준을 고려하여 지식재산 교과목(창의적 사고, 창의적 기초설계, 창의적 종합설계 등)을 선택 신청(강의 일부지원, 또는 전체지원)
- **전공과목 내 지식재산 교육**: 학습내용과 강의지원 주체는 담당 교수와 협의를 통해 운영 가능

	지식재산 입문	지식재산 기초	지식재산 심화
	(교육분야) 특허와 창의적 사고, 특허정보조사	(교육분야) 지식재산 일반, 특허와 창의적 사고, IP창출, 특허정보조사, IP보호, IP활용	(교육분야) 지식재산 일반, 특허와 창의적 사고, IP 창출, 특허정보조사, IP 보호, IP 활용, R&D 특허전략
공학계열 (공 통)	창의적 사고 창의적 기초 설계	지식재산 입문 특허분석과 발명출원 창업과 지식재산 I·II	특허관점의 R&D 전략
공학계열 (컴퓨터·통신·멀티미디어)		스마트폰 앱과 지식재산	
공학계열 (건설)		건축과 지식재산	
의약계열		의약·생명공학과 지식재산	
사회계열		경영과 지식재산	
예술·체육		예술과 지식재산	
모든 계열 (공통)		지식재산 입문 특허분석과 발명출원	
교육과정 상세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지식재산 입문</b>: 특허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전반내용 교육 및 특허정보조사 간단한 실습 → 공과대학 공통 교과목(창의적 사고, 창의적 기초설계) 등에 '지식재산 입문' 교육내용 포함 운영 가능</li> <li>• <b>지식재산 기초</b>: 지식재산 개요 및 특허정보조사, 특허 명세서의 이론·실습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을 이해하는 능력을 함양</li> <li>• <b>지식재산 심화</b>: 지식재산을 이해하고 IP-R&amp;D 방법론을 습득하여 특허를 활용한 특허포트폴리오 창출 및 R&amp;D 방향을 기획</li> </ul>		

## ● 신청 및 선정방법 안내

- **신청기간**: 2013. 11. 11(월)~12. 20(금)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지식재산 인력양성사업 종합정보 홈페이지([www.iphuman.or.kr](http://www.iphuman.or.kr)))
- **제출서류**: 지식재산 강좌지원 신청서 1부, 해당 강좌의 교육과정 1부, 기타 증빙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 지식재산 인력양성사업 종합정보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 참조

\* 문의사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팀 ☎: 02-3459-2888



# 국민이 경쟁력인 나라

대한민국의 경쟁력,  
바로 여러분의 아이디어입니다.  
지식재산강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러분의 상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도전하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도전이 전문성의 날개를 달 수 있도록  
한국발명진흥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초의 지식재산 전문기관으로 걸어온 길 40년  
이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지식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 정부 3.0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정부3.0이 새로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새 시대를 정부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개방

공유

소통

협력



안전행정부  
www.gov30.kr







친절한 관광경찰 · 행복한 한국관광

“도움이 필요하세요?”

# 한국에는 친절한 관광경찰이 있습니다!

관광명소에서 관광경찰이  
친절한 미소와 언어로 도와드립니다

## 관광경찰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이런 일을 합니다

- 첫째, 관광객 보호 및 관광지 범죄예방** | 서울 7개 관광지에서 관광객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합니다.
- 둘째, 불법행위 단속** | 바가지요금, 콜밴 불법영업, 쇼핑 강매 등 각종 부당·위법 행위를 단속합니다.
- 셋째, 관광안내 및 통역서비스** | 영어, 일본어, 중국어 관광안내 및 통역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넷째, 관광불편사항 처리** | 관광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해결합니다.

**근무지역** | 7개 관광명소(명동, 이태원, 동대문, 인사동, 홍대, 시청·청계천, 남대문 주변)  
**근무시간** | 연중무휴 09:00~23:00  
**연락처** | 국번 없이 1330(관광안내전화 콜센터)



“생각은 현실로, 상상은 가치로”

새로운 미래를 여는 창조경제



2013. 12. 12(목)~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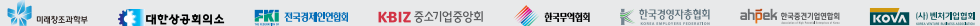
전시

- ZONE1. 아이디어관 | 다양한 아이디어의 발전과정 체험
- ZONE2. 도전관 | 스타트업의 제품·서비스 전시, 투자 상담
- ZONE3. 성장관 | 중소·벤처·중견기업의 기술·서비스 전시
- ZONE4. 상상관 | 상상·동반성장 지원프로그램 소개

부대 행사

- |  |   |
|--|---|
| <p><b>첫째 날 행사 (12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막식</li> <li>• 대한민국 창조경제 대상 시상식 (산기협)</li> <li>• 창조경제 공감 콘서트 (중기중앙회)</li> </ul> | <p><b>둘째 날 행사 (13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업 벤처육성 사업 설명회 (전경련)</li> <li>• 창조경영 활성화 컨퍼런스 (대한상의)</li> </ul> |
| <p><b>셋째 날 행사 (14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경연(무역협회)</li> </ul>   | <p><b>넷째 날 행사 (15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타트업 2013 (창의재단)</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타트업 오픈 리크루팅데이 (12일~13일)</li> <li>- 네트워킹 파티 (12일~14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라우드 펀딩 컨퍼런스 (12일~13일)</li> <li>- 특별강연 (14일~15일)</li> </ul>                                  |

주최



후원





산림청에서는 범정부적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근절에 기여하고,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숲으로 가져!!"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www.forest.go.kr](http://www.forest.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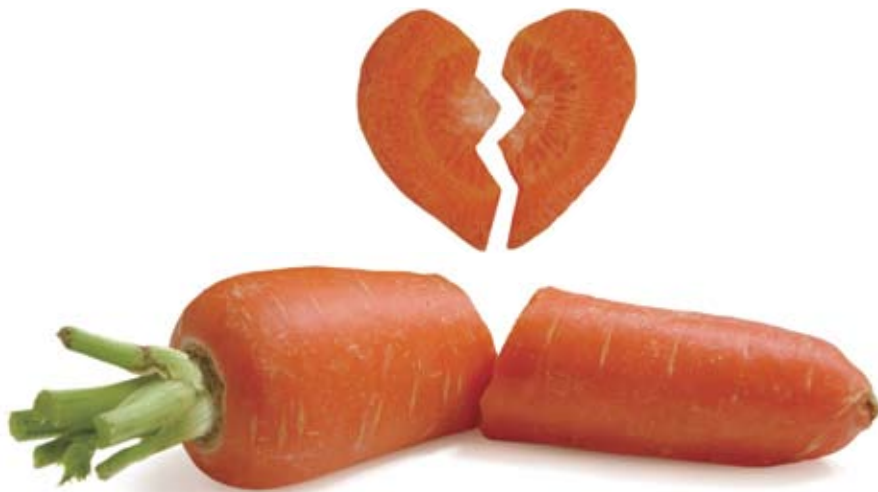


# 산불, 우리 생명도 함께 태웁니다

산림 1ha당 연간 16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하루 44명이 숨 쉴 수 있는 12t의 산소를 생산해 냅니다. 나무와 숲이 숨을 쉬어야 우리도 숨 쉴 수 있습니다. 푸른 숲을 지키는 우리의 작은 실천과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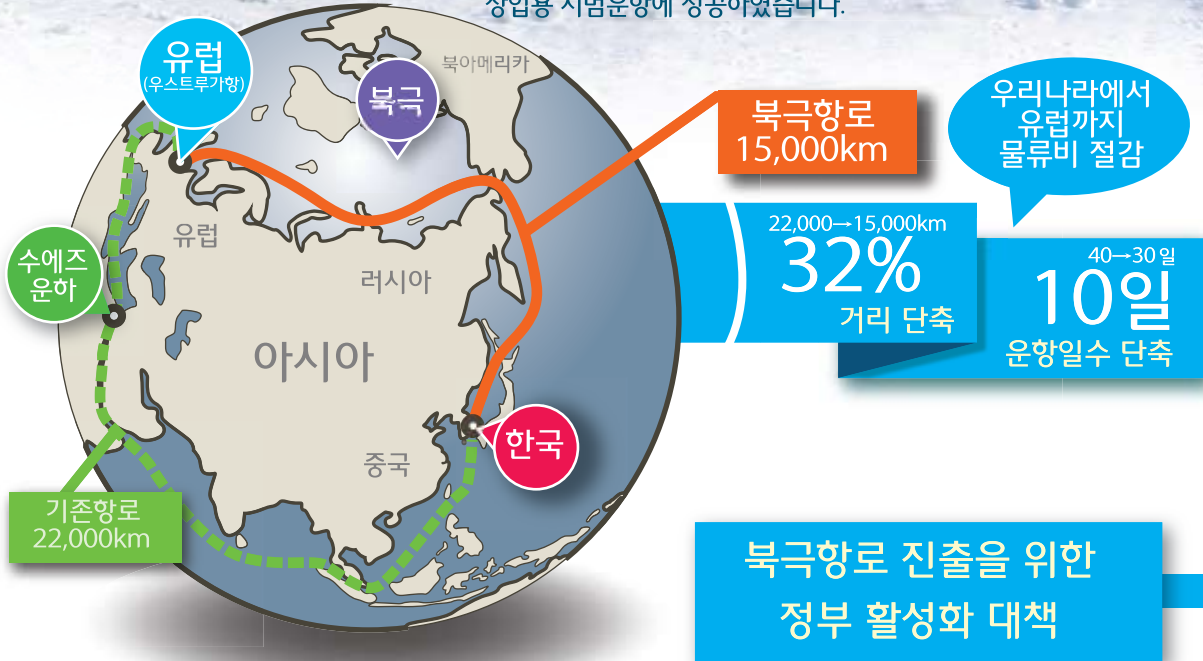
# 야근이 당근?



수요일 정시퇴근  
가족과 함께 지내요

# 대한민국, 21세기 新해양 실크로드 북극항로 열었습니다.

국적선사 최초로 현대글로벌은 2013년 9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우스트루가항)~아시아간(광양항) 화물을 수송하는 상업용 시범운항에 성공하였습니다.



- 극지선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 입출항 불륨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
- 북극항로 활성화 지원 협의체 구성
- 물류기업 컨설팅 및 타당성 조사
- 북극지역 인적 네트워크 확충

## 기대 효과

- 1 물류비를 절감, 북극지역의 자원 개발사업 등과 연계한 新해상운송시장의 개척
- 2 국내 항만의 북극 화물 유치를 통해 동북아 허브항으로서의 입지 강화
- 3 내빙선·쇄빙선 건조 등 조선, 해양플랜트 연관 산업의 신규 수요 창출 가능

#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의 매력

##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남쪽에 2030년까지  
인구 50만을 목표로 건설 중인  
중앙행정기능 중심으로 하는  
복합형 자족도시

•면적:  
수도권도시 X 4 = 72.91km<sup>2</sup>



### 1 세계 최초의 환상형 도시 (2-Ring city)



환상형 링 모양을 따라 6개 주요 도시기능을  
거점별로 분산 배치

**중앙녹지공간** 금강과 국내최대규모의 녹지공원 조성

**행복도시 주요기능** 중앙행정, 문화, 국제교류, 도시행정,  
대학·연구, 의료·복지, 첨단지식기반

**주변녹지공간** 도시 주변을 녹지로 보전하여 개발 완충 역할 수행

### 2 녹색심장을 가진 국내 최고의 친환경 도시

도시의 증진을 집중 개발하는 데 도시와 달리 중심부에 대규모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도시의 허파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전체 면적의 52%를 공원, 녹지 등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

### 4 기능·미관·자연이 잘 어우러진 디자인 명품 도시

도시 통합디자인, 7대 경관 기준,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도입·적용, CO2 70% 감축,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최첨단 설계기법 적용



### 3 쾌적한 5無 도시

정모주책, 콘크리트담장,  
전봇대, 광고입간판,  
쓰레기통 없는 쾌적하고  
친환경적 도시 건설



### 6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교육도시

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유지하고 유비쿼터스  
기반의 스마트스쿨 도입 등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과 글로벌 우수대학  
유치로 세계적 명품교육 시행

### 5 선진국 수준의 문화·예술 도시

생활권 내 쉽게 이용가능한 도서관과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국립도서관을 비롯한 박물관, 공연장,  
체육관 등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보장하는 풍부하고  
다양한 공공문화 인프라 구축



### 7 어디서나 빠르게 오가는 사통팔달 교통도시

2개 KTX, 4개 고속도로, 3개 국도,  
13개의 광역도로가 연결되는 국가  
교통망의 중심, 직주근접(직접·近接)이동  
구현하는 도시설계로 대중교통 분담율  
70%의 친환경 녹색교통 실현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창조와 도전으로 반짝이는  
'발명특히'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가입니다.

---

생각의 불편이 현실을 뛰어 넘어  
창조적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이 곧 개인과 인류를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발명'은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도전'입니다.